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주혜진 · 이유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혜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라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모니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준희 / 대전여성단체협의회 - 이승희 / 대전YWCA - 최명주 / 대전여성단체연합 • 유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성남 /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 윤영숙 / 대전여성단체협의회 - 이은정 / 대전YWCA • 대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선 / 대전여성단체연합 - 박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 손은경 /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윤 /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학실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심준영 /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강사 • 임정규 /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장미현 / 젠더공간연구소장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1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2절 연구 절차 및 방법	5
3절 기존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연구(2012~2017)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도별 모니터링 내용을 중심으로	6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1
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13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배경과 내용	13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참여	15
2절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연구	16
3절 젠더 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21
3장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23
1절 현장 모니터링 추진내용	25
1.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배경 및 절차	25
2. 현장 모니터링 대상사업 및 주제 선정	27
2절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내용	29
1.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	29
2. 시민모니터단 활동내용	30
4장 도시재생과 젠더 분석	37
1절 대상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결과분석	39
1.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털말 살리기’	39
2.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40
3.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41
2절 제안 사항 분류 및 분석	43
3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46
참고문헌	47

부 록	49
부록 1.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동구)	49
부록 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유성구)	66
부록 3.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대덕구)	105
부록 4.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129
부록 5.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135

표 차례

[표 1-1]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검토 내용(2012~2017)	7
[표 1-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기획회의 내용 요약표	10
[표 2-1] 도시재생 분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19
[표 3-1]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	29
[표 3-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아카데미 개요	30
[표 3-3]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2차 아카데미 개요	31
[표 3-4]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도시재생’ 분야 정책 멘토링 개요	32
[표 3-5]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젠더’ 분야 정책 멘토링 개요	34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5
[그림 2-1]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방향	14
[그림 3-1] 현장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26
[그림 3-2]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기준	28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절차 및 방법

3절 기존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도별 모니터링 내용을 중심으로

1장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성 주류화는 정책의 형성 및 시행의 전 단계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성인지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함(주혜진, 2016)
- 성 주류화는 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성평등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모든 단계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임
- 대전시는 2001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성 주류화 전략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는데 기여함으로써 시민, 젠더전문가, 학계, 언론, 의회 등 시민사회 전반으로부터 '성평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성과를 이뤄냄. 또한 2006년 시작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한 개선 사례들을 축적해 왔음
- 하지만 법의 제정과 정비, 제도의 수립과 확산 등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책 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 주류화 확산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과정 및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음. 2012년 첫 번째 시행 이후, 매년 성별에 따른 정책 사업 수혜 현황 및 욕구 파악과 환류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니터링 이슈 발굴 및 방법을 모색해 왔음
- 2012년부터 센터에서 수행해 온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분석·검토했으며,¹⁾ 분석·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함²⁾
- 현재까지 진행된 모니터링은 완료된 사업을 검증하는 수준에 그치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책 모니터링과 중복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중·장기적 계획 및 추진의 필요성, 모니터링 역량 강화 과정 확대 및 다양화,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 및 사업 선정의 중요성

1)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실시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2012~2017) 검토 내용은 [표 1-1]을 참고

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기획회의를 실시했으며, 회의 내용은 [표 1-2]를 참고

등이 제기 됨

-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전시 및 자치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연 평균 2조원 수준)되는 사업으로 주거지 개선,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이끌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꼽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온 연구는 많으나, 이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거나 접근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민소영, 2014; 김지연, 2003 등)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주도적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친 단계별 운영을 통해 민선 8기에 반영 가능한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 도출과 정책 환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올해는 모니터링 1단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인 ‘주민참여’와 ‘성 주류화’를 연계해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또한 정책 멘토링을 활용해 시민모니터 단에게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단체 및 여성기관을 활용함. 주민의 성 주류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참여와 개입은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는 물론 성 주류화 의식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안경주, 2013)

2절 연구 절차 및 방법

-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연구의 기획 및 설계부터 모니터링 준비 및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으로 구성함

추진단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 기획 및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분석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발간한 2012년~2017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내용 검토 -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연구 및 사례 검토 - 젠더 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연구 검토 ▶ 연구 방향 및 모니터링 운영방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와 함께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주제 및 방향, 목적, 운영방식 등 논의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모니터링 준비 및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대상사업 및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 가이드라인 작성 및 모니터링 분석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단계 및 일정 검토, 정리 - 모니터링 지표 및 질문지 개발, 검토, 확정 ▶ 모니터단 모집 및 교육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건축 분야 젠더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구성, 선행연구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방향 설정 논의 ▶ 현장 모니터링 내용 분석 및 결론 도출 ▶ 모니터링 최종 결과 발표 및 공유 ▶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3절 기존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연구(2012~2017)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도별 모니터링 내용을 중심으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연구를 해오고 있음.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연구를 본격 수행하기에 앞서 모니터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센터에서 수행해 온 모니터링의 목적 및 대상사업, 모니터단 구성, 모니터링 과정, 특징을 분석하고 검토함. 검토 내용은 다음의 [표 1-1]와 같음

[표 1-1]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검토 내용(2012~2017)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 분야 및 사업	모니터링 구성	모니터링 과정	수시 멘토링 운영	특징	검토 의견
1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정책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NGO, 정책NGO, 생활공감주부모니터링단, 대학생 등 공개모집을 통한 16명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모집 → 아카데미 운영 →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지표 정비 및 활동 방식 등) → 최종 결과 점검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구성 및 아카데미 운영까지 지표 미비 ▶ 지표구성부터 활동보고서까지 멘토의 모니터링 수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리스트 및 선정 이유 제시되지 않음 ▶ 활동보고서 작성 형식의 일관성이 없어서 가시성이 떨어지며, 이해하기 어려움 ▶ 2기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복잡해서 보고서의 내용 파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모니터링단 위주로 구성된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구성 → 1차 워크숍(지표 및 활용 방안 논의) → 2차 워크숍(중간점검, 멘토별로 진행) → 3차 워크숍(최종 결과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지표 정리해서 지표 가이드라인 제시(1차 워크숍까지 수정) ▶ 지표구성부터 현장점검까지 멘토의 모니터링 지원 	
2 0 1 3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사업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대전시&서구- 복지, 교통, 환경 사업) 중 선정 ▶ 프로그램(재가장애인복지정 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시설 및 환경(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분야로 구분해서 총 12개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NGO, 정책NGO 등 공개모집을 통한 12명 선발 ▶ 그러나 3명 중단으로 총 9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모집 → 모니터링단 교육 → 1차 워크숍 → 2차 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활동보고서 작성 등 멘토링 수시 지원 ▶ 멘토와 모니터링단 간 협의 후 최종 대상과제(1기) 및 대상지역(2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및 대상지역 선정 이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활동보고서 작성 시, 지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지표 일부만 활용)해 사용한 경우가 있어서 내용 파악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에서 활동한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워크숍(대상사업 및 지표 논의) → 2차 워크숍(활동내용 공유 및 개선안 논의) 	○		
2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공원과 하천변의 공중화장실 8개 곳 ▶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1개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 분야 및 사업	모니터단 구성	모니터링 과정	수시 멘토링 운영	특징	검토 의견
1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작성된 대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차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현황 파악 ▶ 특정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심층 모니터링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 평생교육 ▶ 지킴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관계자, 여성정책 연구자 등 공개모집을 통한 10명 선발 	<p>모니터단 모집 → 모니터단 교육 → 1차 워크숍(지표 수정 논의) → 2차 워크숍(중간 점검) → 3차 워크숍(최종 결과 점검)</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구성 ▶ 대상사업 선정 기준 제시 ▶ 수시 멘토링 운영이 아니라 워크숍에서의 일시적 멘토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각 문항에 구체적 설명으로 지표 이해가 쉬움 ▶ 이전보다 일관성 있게 정리, 작성된 활동보고서도 내용 파악이 쉬워짐
2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실 운영 실태 점검 및 성평등한 개선안 도출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주요 공공시설(13곳) 및 대형마트(14곳), 기타(2곳) 등 총 29개 수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관계자, 활동가,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공개모집을 통한 10명 선발 	<p>모니터단 모집 → 모니터단 교육 → 중간 워크숍 → 최종 워크숍</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전 수유실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완료 ▶ 대상사업 선정 회의 실시 및 선정 이유 제시 ▶ 이듬해 센터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수유실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결과가 요약한 표와 제언 정리가 유용하게 느껴짐 ▶ 다만, 활동보고서의 개선안 내용이 미흡해 보임
2 0 1 5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① 여성이 행복한 전통시장 육성 ②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 ▶ 대덕구 ①충리행복길 상권살리기(벼룩시장) ② 가족단위 오토캠핑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관계자, 활동가,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추천을 통한 10명 선발 ▶ 1명 증단으로 총 9명 활동 	<p>모니터단 모집 → 모니터단 교육 → 중간 워크숍 → 최종 워크숍</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 회의 실시 및 선정 이유 제시 ▶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사업별 특성 반영해 분야별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대덕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역여성을 활용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점검 및 정책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목적과 이유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됨 ▶ 모니터링 분야별 간결한 제안사항 제시로 이해가 쉬움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 분야 및 사업	모니터링 구성	모니터링 과정	수시 멘토링 운영	특징	검토 의견
2 0 1 6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2014년에 작성된 대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차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현황 파악 ▶ 특정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심층 모니터링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교육운영 ▶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 하천 편익시설 설치 ▶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대학교, 각 구청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추천을 통한 6명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모집 → 모니터단 교육 → 중간 워크숍 → 최종 워크숍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점검에서 이행 현황을 ‘전부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 및 수치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종합 분석 후 모니터링 진행함으로써 환류과정 이행 ▶ 대상사업 선정 회의 실시 및 선정 기준 제시 ▶ 심층 모니터링 전 2회에 걸친 지표 설정 회의 실시 ▶ 사업별 특성 반영한 지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 교육에서 공통 교육과정 외에 투입될 사업에 맞게 전문 자문위원에게 그룹별로 교육받는 분과별 교육이 눈에 띄 ▶ 모니터링 사업별 간결한 제안사항 제시로 이해가 쉬움
2 0 1 7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 작성된 대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안전’ 분야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방향 탐색 ▶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통해 정책 개선안 제시 및 환류 과정을 통한 정책 조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및 여성단체 등 추천을 통한 10명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단 모집 → 모니터단 교육 → 중간 워크숍 → 최종 워크숍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의 분야별 통계 및 지역성평등 지수 분석 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 선정 ▶ 대상사업 선정 회의 실시 및 선정 이유 제시 ▶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3단계 탐색 과정을 거쳐 선정 ▶ 모니터링 지표는 2016년 모니터링 지표 체계와 1세대 CPTED 원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안한 성인지적 관점 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해 개발 ▶ 자치구별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혹은 대상사업 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지표 구성이 체계화 됨 ▶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인해 활동보고서 내용 파악이 쉬웠으며, 대상지역이나 자치구별로 비교 용이함 ▶ 자치구별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사항, 우수 사항을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모니터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했음 ▶ 또한, 명확한 문제점 및 제언 정리는 정책수행기관이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표 1-1]의 분석·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의 주제 및 방향, 목적,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흐름을 탐색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외부 전문가와의 기획회의를 개최함. 기획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음

[표 1-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기획회의 내용 요약표

<p>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니터링은 지표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검증하는 수준에 그침 ▶ 여성친화 서포터즈단이 정책현장 모니터링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경험이 축적되고 있고,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의 분야가 중복되고 있음
<p>제안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문성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단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임 ▶ 본격적인 모니터링 이전의 ‘사전 모니터링’ 처럼 기초선 조사 형태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를 1단계로 해서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함 ▶ 모니터단에게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대상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합 교육도 중요하나 정책의 프로세스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함. 사업 및 정책이 어떠한 형식으로 수립되고 운영되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야 함
<p>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자치구를 통틀어 공통적인 역점사업 및 정책을 선정해서 정책의 전반에 대한 운영과 각 단위사업까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함. 예를 들어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성인지적 관점과 연계해 모니터링 해보는 것임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2절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연구

3절 젠더 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의 주민
참여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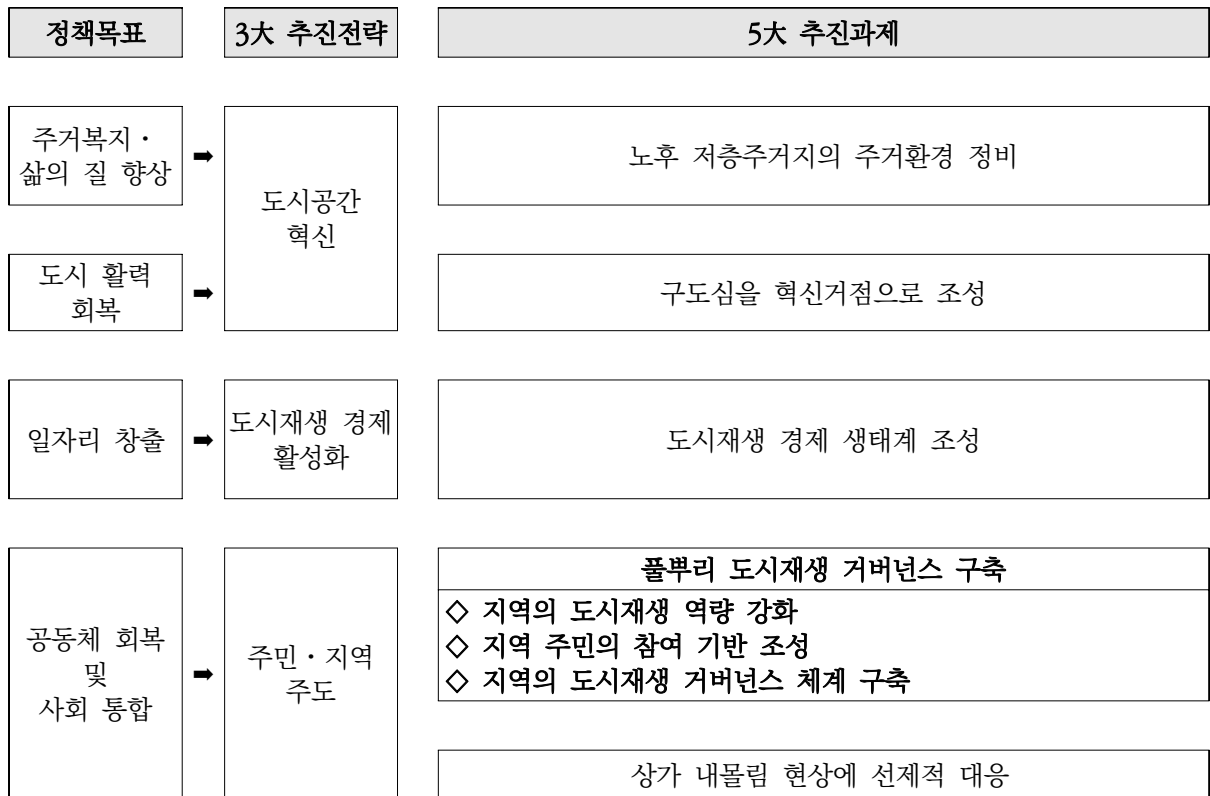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

-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신도시 개발 및 주거지 전면 정비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해 왔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도시 공동화 현상, 주택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되고 있음. 또한 대도시의 건축물 노후화가 확산 중이며,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도 심각하여 삶의 질 만족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국토교통부, 2018)
- 도심의 노후화 및 쇠퇴와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신도시 개발사업 및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위축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쇠퇴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지원함.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 중심에서 ‘재생’으로 전환됨(국토교통부, 2018)
- 그러나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참여도 미흡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은 더뎠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³⁾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됨(김이탁, 2018)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재생역량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도시 재생 추진전략의 필요성 대두됨(국토교통부, 2018)
- 이에 2017년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으로 정의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그림 1-2]와 같이 4대 목표, 3대 추진 전략과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해 추진되고 있음

3) 2016년 말 읍·면·동 기준 국내 도시의 3분의 2(2,200여 개)가 쇠퇴 중이나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



[그림 2-1]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방향

자료: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참여

- 대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참여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그림 1-2]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의 5대 추진 과제 중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뉴딜사업은 주민의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음.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중앙 주도 방식에서 지역주도의 Bottom-up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임. 즉, 뉴딜사업은 사업발굴과 추진 등 의사결정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체와 주민 간 상생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이탁, 2018)
- 사업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쇠퇴진단·잠재력 진단을 위한 조사는 용역팀 뿐만 아니라 현장지원센터, 주민·상인협의체, 일반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현장 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마을 만들기 학교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 계획기법을 활용한 주민참여 지역조사 활동 등을 추진해야 함(박경란, 2018)
-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 제안)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절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연구

- 도시재생 분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참여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거나 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 상대적으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음. 따라서 먼저 도시재생 분야의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방안을 도출한 연구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박경란(2018)은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4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사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의 수준, 관심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목함
- 박경란(2018)은 관의 제안과 주도하에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것 보다 마을 자체 내 공동체 조직, NGO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주민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의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다고 밝힘
- 도시재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단위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음(박경란, 2018)
- 이외에 박경란(2018)은 마을 단위별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치, 주민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시기 조기화, 주민과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 등을 제안함
- 신현주 외(2017)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기정사실 임에도 행정은 이를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로 이해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막상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정해진 사업기간에 맞춰서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예산을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과의 갈등은 주민의 참여수준을 분명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함
-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행정이 진행하는 홍보나 행사 등에 주민을 동원하고, 평가 기준에 얽매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창의적이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민참여에도 여러 수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폭 넓게 불리우는 '단순한' 주민참여는 주민참여가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민주적 절차에 따르며 포용적으로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질 수 있다고 지적함(신현주 외, 2017)
-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현주 외(2017)는 사업진행 시기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 주어야 하며, 행정이 지역의 비전과 컨셉을 구상하고 공공이 지향하는 바를 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하여 행정에 요구하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때 주민 역량강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김준영(2016)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폭넓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음. 주민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 역량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힘

- 김화령(2015)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동체 활동과 경험이 주민 간의 유대감과 신뢰관계 구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함
- 이에 김화령(2015)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홍보방안 마련,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중간 지원조직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장,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도출했음
- 문건주(2015)는 주민들은 재생사업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교육 증진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 사업시행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 사전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실행하여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기회가 누락 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문건주, 2015)
- 강기용(2010)은 도시재생사업 참여주체 및 참여자 집단 모두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성공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주체 및 참여자들 사이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장애요인이나 개선과제에 대하여 범국가적 고민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함(강기용, 2010)
- 강기용(2010)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각 구성원 간 역할 정립을 통해 공공이나 기업, 주민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아닌 민·관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계획을 수립·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공공·기업·주민 등 각 참여주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리더의 양성을 통해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성공적·효율적인 도시재생을 함께 고민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일반 주민 누구나가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가 쉽도록 관련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식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안병훈(2009)은 도시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지원 및 추진체계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NGO,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주체가 상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네트워크화

된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조직체계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이끌어내어 공동적인 이해기반과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있을 때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음(안병훈, 2009)
- 안병훈(2009)은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며, 주민 발언이나 질문 등에 대하여 주민상호간, 행정기관과 주민대표 간 이해 및 의견 대립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거나 그 의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의견의 반영여부 및 불채택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한상욱(2007)은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와 참여태도의 개선, 행정에서의 홍보·정보공개·주민참여기회의 확보 제공,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의 계획 및 주민참여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제시함
- 조승연(2007)은 과거에는 정책 형성에 공공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지만 점차 시장 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최근에는 시민사회 부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의 보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주민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함
- 중요한 사항이나 계획이 결정된 다음의 자문 형식의 주민 참여가 아니라 시작단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과정의 진행과 정도에 따라 각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시기, 전체 과정 내에서의 참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인식시켜야 함(조승연, 2007)
-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확인함
- 도시재생 분야의 주민참여와 관련성이 깊은 선행연구들의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2-1] 도시재생 분야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제목	제안 내용
박경란(2018)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동참 ▶ 소규모 단위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 중요 ▶ 마을 단위별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치 ▶ 주민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시기 조기화 ▶ 주민과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
신현주 외(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 시기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 ▶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발적 모임을 구성하고 논의를 통하여 행정에 요구하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김준영(2016)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부산, 영주, 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의 기회를 폭넓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김화령(201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방안 마련 ▶ 행정의 전문성 확보 ▶ 중간지원조직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보장 ▶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문건주(2015)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정과 주민참여 실태 연구: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교육 증진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 ▶ 사업시행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 ▶ 사전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실행
강기용(2010)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 루원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 및 참여자들 사이에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장애요인이나 개선과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 ▶ 전반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구성원 간 역할 정립 ▶ 공공·기업·주민 등 각 참여주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리더 양성 ▶ 주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가 쉽도록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식수준 제고

연구자	연구제목	제안 내용
안병훈(2009)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지역주민, NGO,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한 추진체계 마련 ▶ 행정기관은 주민 발언이나 질문 등 그 의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견의 반영여부 및 불채택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함
한상욱(2007)	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의 자생력 확보와 참여태도의 개선 ▶ 행정에서의 홍보·정보공개·주민참여기회의 확보 제공 ▶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의 계획 및 주민참여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배려 필요
조승연(2007)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과정의 진행과 정도에 따라 각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시기, 전체 과정 내에서의 참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인식시켜야 함

3절 젠더 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 정책 및 사업에 젠더 관점⁴⁾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과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수혜자인 시민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의 영향력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하고, 결과도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 수혜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주혜진, 2016)
- 모든 정책 및 사업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젠더 관점 적용은 필수적임(박미석 2004; 주혜진, 2016)
- 그러나 장미현(2018)은 “전통적으로 공간계획은 성중립적이라 여겨져 장애인, 고령자, 아동은 대상자로서 고려되었으나 여성은 대상자로서 간과되었고,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공간요구나 이용방식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저출산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가 도시쇠퇴로 이어졌고 이를 도시재생의 도입 배경으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문제,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며, 지역 여성의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젠더 관점의 결여는 도시재생사업이 경제와 효율을 강조하는 남성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추진 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김만재, 2018)
- 이에 최근에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젠더 관점의 반영과 실천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욕구와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도시 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고른 참여, 나아가 정책의 주변부에 있던 여성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주목하고 있음
-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지역에서 보내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으며, 더구나 지역문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여성의 다양한 생활 경험들이 사적인 경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처한 문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의미하는 바가 큼(김지연, 2003; 민소영, 2014)
- 특히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남성들보다 다양한 역할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함(김만재, 2018)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이를 젠더 관점에서 여성참여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4) 특정 개념이나 정책이 특정 성(性)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주혜진, 2016)

- 선행연구들이 실질적 ‘도시재생의 주민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조하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는 ‘젠더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자원을 발굴하여 재생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도시재생사업단, 2011),
 - ② 이를 위해 참여주체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계획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가 배제되지 않고’ 계획에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송종철, 2016),
 - ③ 대다수 도시재생 대상 지역들은 낙후된 곳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즉, 이 세 가지는 ‘주민은 누구이며’, ‘누가 참여를 주도 하는가’,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등 주민참여가 어떠한 구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젠더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여성참여 활성화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함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1절 현장 모니터링 추진내용

2절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내용

3장

3장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

1절 현장 모니터링 추진내용

1.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배경 및 절차

-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재생부터 수행까지의 단계에서 ‘주도적 참여자로서의 여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함. 즉 외곽에서의 참여가 아닌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여성참여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현황, 그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젠더 관점에서 ‘주민참여’ 및 ‘여성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했으며, 정책 사업의 현장에 나가 직접 수행자들 및 수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성인지적 개선안을 도출해보고자 함
- 모니터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함. 1회성 집합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젠더관점’과 ‘대상사업 현황 및 특성’을 나누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함
- 모니터링 교육 후 대상지역 사업별로 팀(3인 1조)을 나뉘었으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작성한 모니터링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포함하여 총 2회 이상 모니터링 활동 실시함
- 이번 현장 모니터링의 특징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제안사항 도출에 기여하고자 정책 멘토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임.
- 모니터단은 성인지적 정책 패러다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어떠한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성인지적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 전문가, 성 주류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따라서 분야별(도시재생, 젠더) 멘토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기간과 종료 후 대상지역 사업별(조별)로 ‘정책 멘토링 워크숍’을 2회 운영했으며, 이후 최종 결과보고회 1회에 필수 참석해 중간 결과 검토, 제안사항 논의, 활동 결과 발표 등을 수행함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모니터링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총괄 보고서를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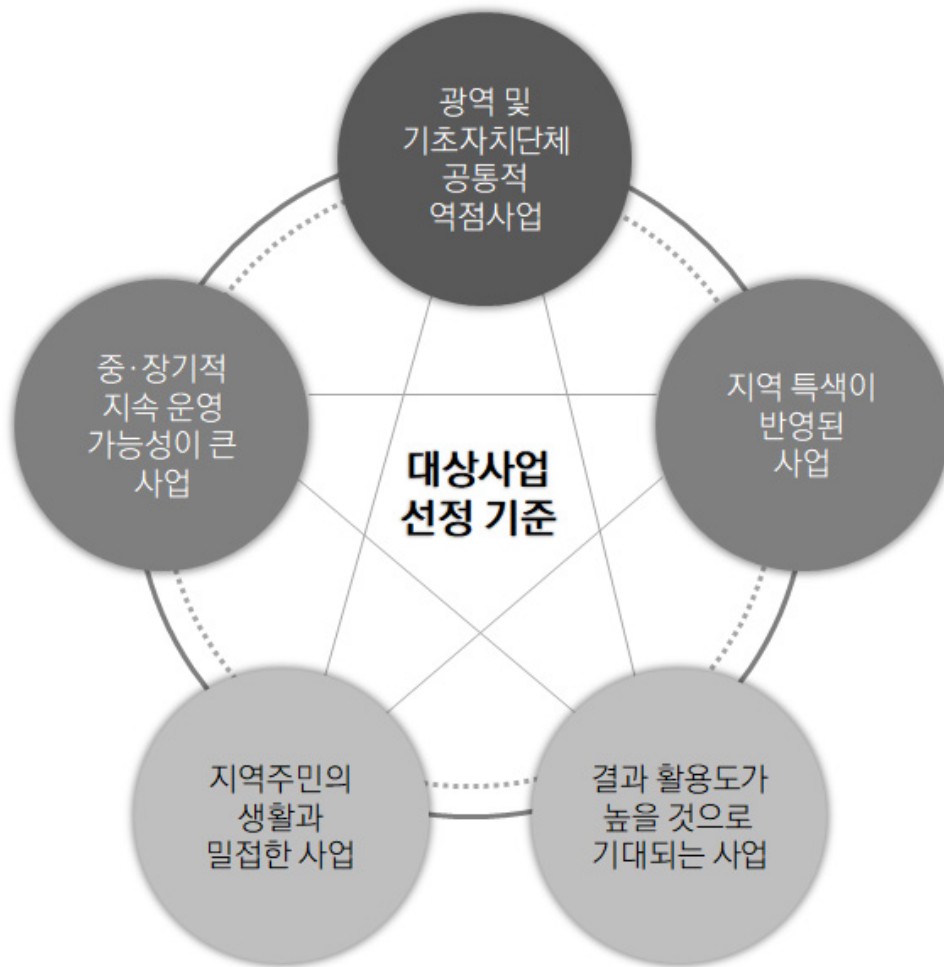
8월	모니터링 대상 사업 및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지역 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① 대전시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②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③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율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모니터단 모집 8.23~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단체 추천 의뢰를 통한 공개 모집, 총 9인 활동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YWCA 추천을 통한 활동가 또는 실무자 7인 - 서구 및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가 2인
9월	모니터단 1차 아카데미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취지 및 일정, 운영 방법 등 논의 • '도시재생과 젠더관점 여성참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작성 및 분석 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한 모니터링의 주안점, 모니터링 일정,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해야 할 곳, 인터뷰 대상, 모니터링의 주안점 등 가이드라인 작성 • 모니터링 대상 사업 탐색 지표 및 인터뷰를 위한 예상 질문지 개발
	모니터단 2차 아카데미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취지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및 질문지 설명 • 대상 사업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대상 사업의 현황 및 특성, 주민참여 실태, 계획 등 • 사업별 모니터링 조 구성(3인 1조) 및 조별 모니터링을 위한 논의
10월	현장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질문지 조별 수정·보완 및 일정 조율 등 현장 모니터링 준비 • 현장방문, 실무자 및 주민 인터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여성참여 현황 및 욕구 파악'
	1차 정책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조별) '도시재생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수정·보완 및 제안사항 도출
11월	2차 정책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조별) '젠더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수정·보완 및 제안사항 도출
12월	모니터링 최종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내용과 제안사항 등 조별 발표 및 결과 공유

[그림 3-1] 현장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2. 현장 모니터링 대상사업 및 주제 선정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모니터링 기획회의 및 내부 연구진 회의를 통해 [그림 2-2]와 같이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을 마련했으며, 대상사업 및 주제 선정 과정을 거침
-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력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면서 1년 단위의 단기적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계획한 사업, 또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아 체감도가 높은 사업, 추후 사업 운영이나 추진 함에 있어 모니터링의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5가지 기준을 포괄하면서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한 ‘대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함
-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 때문에 3년에 걸친 단계별 운영을 목표로 올해 1단계를 계획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대상사업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대전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4개 지역의 사업이 선정되었음
- 4개 지역 사업 중 1개 지역 사업을 제외⁵⁾하고 3개 지역 사업을 모니터링 대상 사업으로 확정함
 - ① 대전시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털말 살리기’
 - ②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③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대상사업의 확정 이후, ‘무엇을’ 모니터링 할지 주제선정의 과정을 거쳤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4.24.)에 따르면,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주민과 커뮤니티의 주도’를 제시했음.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예산 지원 이후에도 주민이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상시화’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전 및 목적에 부합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 시킬 수 있는 주제로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선정함
- 따라서 올해 모니터링은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주민 참여 현황 및 어려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여성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5) 모니터링 1차 워크숍에서 중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듣지 못함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제외하게 됨



[그림 3-2] 모니터링 대상사업 선정 기준

2절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내용

1.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

-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의 주체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맡았으며,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대전지역 내의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대전YWCA 등 여성단체 및 기관을 통해 추천받았음
- 또한 기존의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에 소속된 시민을 모니터단으로 참여 의뢰함
-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여성단체 및 기관을 통한 추천 의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 따라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성 주류화 정책,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많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활동가나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안 사항을 도출하고,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표 3-1]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

구성 및 운영 주체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모집과정	▶ 대전지역 내 여성단체 및 기관마다 모집 협조요청 공문 발송
모집대상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활동가 또는 실무자 ▶ 여성가족 정책 이슈에 관심은 자 ▶ 각종 정책사업 모니터링 활동 경험자 ▶ 컴퓨터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가능자
선정과정 및 결과	▶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추천의뢰를 통한 총 10명 선발 ▶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시작하였으나, 아카데미 이후 모니터단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총 9명이 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활동 -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YWCA 활동가 또는 실무자 7명 -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1명 -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1명 ▶ 구성된 9명은 대상지역 사업별로 팀을 나눠 활동(3인 1조)

2. 시민모니터단 활동내용

1) 아카데미 운영

- 현장 모니터링 실시에 앞서 원활한 모니터링 진행을 위해 시민모니터단과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진행함

(1) 1차 아카데미

-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의 운영 계획 안내 및 모니터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젠더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에 관해 교육을 실시함


[표 3-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1차 아카데미 개요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16:00~17:40
장 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참 석 자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진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 소개 및 인사 ▶ 모니터링 취지 및 일정,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 ▶ ‘도시재생과 젠더관점 여성참여’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염인섭(대전세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 및 마무리
활동사진	

(2) 2차 아카데미

-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진행 일정, 대상사업, 조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수립한 가이드라인 및 활동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음.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념, 각 모니터링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함

[표 3-3]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2차 아카데미 개요

일 시	2018년 9월 21일(금) 13:30~18:00
장 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참 석 자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단,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진, 대전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진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세부 일정 및 대상사업, 조사방법 등 안내 ▶ 발표 1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희준(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기획팀장) ▶ 발표 2 / 2017년 선정 4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현준(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이승기(중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이태호(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이지현(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 9명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안내 ▶ 조 구성 및 조별 논의
활동사진	


2) 정책 멘토링 운영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대상지역 사업별(조별)로 전문가를 매칭해 정책 멘토링을 운영함
- 정책 멘토링을 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이슈, 성인지적 관점의 제안사항 도출 방법, 활동보고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함

(1) '도시재생' 분야 정책 멘토링

- 멘토 구성: 각 대상사업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3인
- 운영 형태: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형태의 집단 멘토링

[표 3-4]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도시재생’ 분야 정책 멘토링 개요


대상사업 지역	성 명	기관(소속)	멘토	일시 및 장소	활동사진
동구	최명주	대전여성단체연합	노현준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2018년 10월 19일(금) 15시~17시 -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준희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이승희	대전YWCA			

대상사업 지역	성 명	기관(소속)	멘토	일시 및 장소	활동사진
유성구	문성남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이태호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2018년 10월 24일(수) 12시~15시 -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윤영숙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이은정	대전YWCA			
대덕구	김경진	대전여성단체연합	이지현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2018년 10월 31일(수) 16시~18시 -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손은경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2) '젠더' 분야 정책 멘토링

- 멘토 구성: 젠더 및 성 주류화 관련 전문가 3인
- 운영 형태: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 형태의 집단 멘토링

[표 3-5]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젠더' 분야 정책 멘토링 개요

대상사업 지역	성 명	기관(소속)	멘토	일시 및 장소	활동사진
등구	최명주	대전여성단체연합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장)	- 2018년 11월 20일(화) 14시~16시 -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김준희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이승희	대전YWCA			

대상사업 지역	성 명	기관(소속)	메토	일시 및 장소	활동사진
유성구	문성남	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p>심준영 (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강사 /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p>	<p>- 2018년 11월 6일(화) 14시~16시 -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p>	
	윤영숙	대전여성단체협의회			
	이은정	대전YWCA			
대덕구	김경진	대전여성단체연합	<p>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p>	<p>-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12시 -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p>	
	박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손은경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도시재생과 젠더 분석

- 1절 대상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결과분석
- 2절 제안 사항 분류 및 분석
- 3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4장

4장 도시재생과 젠더 분석

1절 대상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결과분석

1.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1) 현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지역공동체에 소속된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지만, 일반주민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닌 주민공동체 대표단 회의를 진행하며, 대표가 회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주민공동체 대표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듯함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높으나 자발적 참여보다 권유로 인한 참여 또는 동원형 참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특정 (높은) 연령층 여성들의 참여만이 두드러지며,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모니터단 주요 제안 사항

-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체 소속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또는 여성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존중해주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뒷받침 되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주민을 대상으로는 리더십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20~30대 젊은 연령층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새로 조성 될 커뮤니티센터에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어린이 실내 놀이터)이나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바리스타 체험, 두부 만들기 등)이 보강된다면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음
-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 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또는 행정처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함

2.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1) 현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 듦
- 도시재생사업이 자치구의 해당 추진 부서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됨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전에 얼마나 다양한 주민과 의견을 교류했었는지 소통의 자리를 가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사업 참여가 눈에 띄지 않음
- 참여하는 공동체가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공동체나 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함
- 여성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두드러지나 일반 여성주민이나 여성공동체 활동은 잘 나타나지 않음. 여성상인이 마을의 여성주민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온전히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용하고 이끌어어나가는 것은 센터의 인력 및 예산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임

2) 모니터단 주요 제안 사항

- 주민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 연령, 성별에 따라 관심도 및 인지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나아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청사진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요구됨
- 대전시 및 해당 자치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타 부서(ex. 여성가족과)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의 계획 및 수립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세대별로 정보인지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홍보, 참여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에 주민 모임을 가져야 함. 특히 여성은 직업의 유무, 연령 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제안 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마을신문 발행, 주민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특히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명확히 명시해서 홍보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주민 및 여성의 참여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단위의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유대감을 만들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함
- 특히 여성공동체의 경우, 육아맘, 워킹맘, 주부, 여성노인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위치를 고려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함. 예를 들어, 육아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리고 자주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듯함
- 주민공동체와 마을활동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함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대상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 활동성을 가진 여성주민을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활동가로서 여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예를 들어 건축, 요리, 공예, 심리상담 등 전문성을 갖춘 경력단절여성들의 공동체 결집을 지원하고, 사업을 주도한다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주민이나 여성 마을활동가의 경험을 다른 여성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야 함
- 외국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에 있는 다문화 네트워크와 내국인 주민 간의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알릴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다문화 네트워크나 유학생 모임과 함께 마을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 듯함
- 인근 아파트의 부녀회, 주변 대학교의 학생회 등을 활용해 여성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듯함

3.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1) 현장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여성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변화할 모습이나 목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져 도시재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이해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발전 보다는 개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 파악이나 정보가 부족해 보임
- 주민참여를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도시재생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여성이 많은 것에 비해 운영주체인 주민협의체 내 여성 비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 계획이나 수립에 관해 결정하는 자리에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짐
- 여성주민들은 의견 개진에 있어 소극적이며,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이 경직되어 있는 듯함
-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주민들의 활동에서도 나타남. 주로 여성주민들은 남성리더의 보조역할이나 가사노동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는 가사노동이 장소만 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듦
- 여성주민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이며, 의견 개진보다는 참여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고 있음
- 사업의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양한 주민, 특히 여성들을 배려하지 않고,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이 아쉬움

2) 모니터단 주요 제안 사항

- 자치구와 센터는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특정 집단(상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주민을 사업참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대상으로 한 젠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외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안에 젠더, 성인지 교육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만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
-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의 변화, 교육시간 조정 등 젊은 세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흥골목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사업 기획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도도 제고할 수 있음
-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ex. 문화공연, 밤마실 걷기, 푸드트럭 골목 등)을 운영함으로써 여성,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여성주민과의 협력,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여성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30대 육아맘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회의를 할 경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게 함으로써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참여 시간 조정, 다양한 시간대에 의견 교류 자리 마련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여성의 참여를 봉사로 강요하는 것보다 보상을 통해 여성참여의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젠더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컨설팅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2절 제안 사항 분류 및 분석

- 위의 3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한 사항을 범주화해 정리했으며, 다음과 같음

■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 및 관심 제고

-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생소하고 어려운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음
-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단순히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해하고 개발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함
- 도시재생이 지역주민의 삶, 내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관심을 끌어내 참여로 연결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목표, 취지, 이를 통해 변화되는 점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보다 쉽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음
- 우선 현재 주민들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직업, 연령, 성별에 따라 관심도 및 인지도 차이를 살펴볼 필요도 있음

■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안에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추진 주체 및 수혜자 등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됨

- 여성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참여 주민공동체, 일반주민 등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안에 성인지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

■ 여성참여의 가치 인정

- 여성의 참여를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여겨 필요에 의해 동원되거나 강요되는 형태는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으로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여성의 참여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여가시간의 단순한 활용차원을 넘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까지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주민의 여건을 배려한 참여환경 조성

- 여성의 직업 유무, 연령 등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에 참여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높은 연령층의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20~40대의 여성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30대 육아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모임은 돌봄 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실시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등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참여 방식의 다양화 및 경험 공유

- 소단위의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여성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이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한 집단(ex. 육아맘, 워킹맘, 주부, 여성노인 등)으로 구분해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여성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주민이나 여성 마을활동가의 경험을 다른 여성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리 마련이 중요함. 참여 사례를 학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통과 교류로 정보 공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젠더 친화적인 추진체계 구축

- 젠더 관점이 부재한 도시재생사업의 이면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하다는 의미임
- 따라서 대전시 및 자치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서는 여성정책 부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의 계획 및 수립, 시행에 있어 협업함으로써 젠더 관점 적용 및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음
- 또한 젠더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여성주민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성인지적 이해를 돕고 단순한 참여에 그쳤던 여성들을 '주도적으로 참여'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3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 도시재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도시 재생을 젠더 관점에서 기획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는 ‘주민참여’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주민참여 및 여성참여의 실태, 여성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젠더 관점의 여성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시민모니터단을 통해 추진 실무자 및 여성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제안사항을 도출했으며, 각 지역 사업별로 도출된 제안사항을 공통의 범주로 분류해 제시함
- 현재 수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여성참여 수준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안사항을 도출 및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 및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한 점, 사업 시행 초반으로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나 참여수단, 사업공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수 없었다는 점 등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초기 구상단계부터 사업의 완료 후 평가 및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행단계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참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거버넌스’ 구축,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협력, 협의의 추진체계로서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김영 외, 2008)
- 또한 모니터단의 제안 사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안에 지방자치단체, 여성주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외에 젠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젠더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질적인 여성참여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함. 따라서 여성참여 활성화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작동에 대해 주목할 만함
- 도시재생사업 안에 젠더 거버넌스를 도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젠더 거버넌스의 경우 ‘도시재생’을 올해 주요 논의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음
- ‘젠더 거버넌스’란 정책에서 젠더 이슈가 주류화 되고 그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협력 체계로(김영주, 2012), 이를 도입함으로써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여성참여의 실현과 확산이 가능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안태운 외, 2016)
-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성 주류화 전략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성 참여형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기용(2010),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 루원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지선·조은영·김광구(2018), “도시재생 공론화 과정 연구: ‘서울로 7017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0권 3호, 87~116.
- 김영·서익진·이필용(2008), “마산시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의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20권 4호, 89~110.
- 김재민(2016),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제8권 2호, 145~191.
- 김준영(2016),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부산, 영주, 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3), “여성의 지역운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학실(2013), “도시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한국정책연구> 제13권 2호, 41~60.
- 김화령(201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2a),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제1기 활동 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2b),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제2기 활동 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3a),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3b), <2013년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4a),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4b), <2014년 제2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5), <2015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6), <2016년 기초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II-유성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6), <2016년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운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7), <2017년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 도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 문건주(2015),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정과 주민참여 실태 연구: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소영·이영순(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호, 207~235.
- 박경란(2018), “강릉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실태 분석”,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송인자·한정원(2004), “성인지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인식, 요구도,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2호, 195~212.

손제희(2018),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송종철(2016), “도시재생사업 의사소통 합리성의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현주·강명구(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3호, 25~46.

안병훈(2009),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태윤·정형욱·정혜원·정요한(2016),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 보고서.

이경하(2016),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운영>,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재희·김윤희·김정민(2015), <성평등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도민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보고서>, 전남여성플라자 연구보고서.

임혜경(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의 한계와 가능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83~215.

주혜진(2008), <성인지 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 발전방향과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한상욱(2007), <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연구 보고서.

홍선영(2015), “여성친화도시 관점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5권 1호, 93~122.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2018), 지역X성평등X도시재생을 기획하다,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발전 포럼 자료집.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8.3.27.),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김이탁(2018), ‘장소 만들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법을 모색하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건축과 도시공간>, 29호, 6~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2018), 도시재생에 젠더를 입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여성 참여, 대전세종정책엑스포 2018 자료집.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8),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BRIEF 82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담당자 합동워크숍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2011),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우수 사례집.

장미현(2018) 전남형 여성친화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 전남여성플라자 칼럼(2018.4.30.).

조승연(2007),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새국토협회 2007년도 제2차 포럼 자료집.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 URL: blog.naver.com/newdeal4you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URL: <http://www.city.go.kr/index.do>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17호.

부록 1.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동구)

◇ 대상사업: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명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 지역	동구 가오동	모니터단 성명	김 준 희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3:30~16: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동구 대전로 470번길 32) 및 가오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19(금) 15:00~17: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 - 노인회, 부녀회, 주민협의회, 문화봉사단, 소통하는 새터말 등 주민 공동체는 5개 정도가 있다.	▶ 주민공동체가 각자의 소속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사업의 재심사로 인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에 대한 피드백이 약해져 있는 것이 같다. 거버넌스 과정을 겪어야하니 기대감이 감소했다.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 기대가 낮다.	▶ 사업 진행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주민 기대감이 감소하는 것 같음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주민 개인의 만남 보다 회장단 회의를 진행하여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월 2회하고 있으나 모든 분들이 두 번 참여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에 한 개만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1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민은 여러 개의 공동체에서 기입해 활동을 열심히 함. 따라서 참여도가 좋은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여한다. 연령대는 40~70대이고, 50대가 적극적이며 마을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한 것 같음.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 - 의견은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표현한다. 마을 불편 사항이나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에 적극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를 이야기 해주니 도움이 많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해 정보를 제공해주서 좋은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빠른 행정체계가 필요하고, 다양한 여성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을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관에서의 지나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주민 간의 갈등이 어렵다. 여성주민들의 경우 조용히 배제시키거나 집단 갈등으로 종재자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의 문제와 융합시키는 포용력이 필요한 것 같음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새터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마케팅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 및 주민참여행사 개최를 통해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유대감 향상. - 효과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현장이야기 등을 '새터말을 담다' 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자 함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축제 운영, 도시재생대학, 마을 마케팅 	
<p>□ 사진</p>	 <p>-사진 장소 : 가오동 현장지원센터 -사진 설명 : 『제1회 새터말 정착제』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p>
 <p>-사진 장소 : 가오동 현장지원센터 -사진 설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p>	 <p>-사진 장소 : 가오동 현장지원센터 -사진 설명 : '새터말 이야기' 마을신문 발행</p>

모니터단 의견

- ▶ 사업을 통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제1회 새터말 정착제』를 준비하고 있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꼭지로 주민들의 결집력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됨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주민의 권유와 통장님, 목사님의 부탁으로 참여하게 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가 자발적인 것보다 권유로 인한 참여가 많은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소통하는 새터말과 부녀회가 여성공동체이다. 부녀회는 100% 참여하고 있으며, 소통하는 새터말은 70% 정도 참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높고, 의견을 잘 내는데 비해 의사결정권은 남성이 주도적인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부녀회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주로하며, 경로잔치를 열고 말벗을 해주는 10여 명이 주축이다. 새터말은 마을 발전 복지, 마을사업추진 및 공모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여성들은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 자존감을 높여주고,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 주민이 의견을 표명하면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그 이후는 주민의사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권은 주민공동체 중에 남성이 주도적인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의견도 많이 반영된다. 어려워도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이것을 가능하게 도와줘서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련 공동체대표 회의 시 참여하는 주민 구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고, 여성의 참여가 적어 의견반영이 다소 부족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돈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다. 보상(이익)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져서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힘든 것 같다. 절차상 필요한 것들을 잘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는 것들이 어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상과 관련된 것은 민간함 사항이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 같음

질문&답변	모니터링 의견
<p>✓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1차적으로 강요보다는 입장을 이해해주고, 충분한 설명 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적으로는 완전한 이해는 없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p>	<p>▶ 성인지 관점이 배제된 가정에서의 질서를 마을질서에 적용하려고 하며 여성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것 같음.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여성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 한다면, 시간상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보다 가사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됨. 그로 인해 높은 연령대의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과 아이들도 모두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젊은 여성, 주부, 아이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마을을 방문하며 만나는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음
- ◆ 하여 조금 아는 분들은 도로 정비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음. 그러나,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많았음

◇ 대상사업: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명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 지역	동구 가오동	모니터단 성명	이 승 희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3:30~16: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동구 대전로 470번길 32) 및 가오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19(금) 15:00~17: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는 노인회, 부녀회, 문화봉사단(안전, 집수리), 소통하는 새터말(주민회의) 등 5개 정도 있다. - 참여도는 좋은 편이며, 주민역량강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자체가 빠른 피드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지친 것 같다.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개개인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닌 회장단 회의를 진행하며, 회장단이 회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월 2회하고 있으나 모든 분들이 두 번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1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교육진행으로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마을 공동체를 적절히 잘 활용함 ▶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사업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마을 규모나 바쁜 현대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이는 수나 인원은 적당해 보임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주민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연령대는 40~70대 정도 50대가 적극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성이라고는 하나, 결정권자는 대부분 남성들이고 심지어 외부인들인 점이 아이러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 - 굉장히 적극적이시다. 이곳에 사는 실 주민이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고, 수렴율은 대략 7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실적에 동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 역지를 부리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를 이야기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와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그들의 소소한 요구들을 역지를 부린다고 말하는 부분은 안타까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행정체계가 복잡해 사업이 늘어지는 듯한 감이 있다. 빠른 행정체계가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관의 지나친 제약과 마을주민들에게 학생만을 강요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지원하는 동구청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지원하려는 모습이 보였음. 그러나 사업을 승인해 주는 기관(도시공사?)에서는 기관의 규정을 들어 제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니 협력기관들 간 행정절차와 구비서류를 통일할 필요를 느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주민 간의 갈등이 어렵다. 예를 들면 A와 B가 사이가 안 좋는데 마을 회의에 A가 나오면 B와 그 친한 사람들이 우르르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분이 같은 여성이었다면 이런 여성들의 예민한 감성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확충 분야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도로 조성사업 - 골목길 정비사업 - 주차장 조성사업 - 신기노인정 리모델링사업 <p>□ 사진</p>	 <p>-사진 장소 : 마을도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도로 -사진 설명 : 도로주변 집들의 벽화가 인상적</p>  <p>-사진 장소 :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노인정 -사진 설명 : 따뜻하고 쾌적하게 바뀌길 기대</p>  <p>-사진 장소 : 골목길 정비사업이 추진될 골목 -사진 설명 : 폐기들과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p>

모니터단 의견

- ▶ 일을 추진하는 모든 주체(주민, 구청, 현장센터 실무자)들이 서로 열띤 의견을 내고 해내려는 의지가 가득한 현장을 느낌
- ▶ 마을도로나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주들의 이권과 관련 있다 보니 민감하게 받아들여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워 보였음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p> <p>- 주민들과 오며가며 만난 슈퍼 사장님, 동네 목사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p>	<p>▶ 이 마을에 더 오래 잘 살고 싶어 사업에 참여한다는 주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음</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소통하는 새터말'과 '부녀회'가 여성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부녀회의 여성비율은 100%, '소통하는 새터말'은 70% 정도이다.</p>	<p>▶ 지속되던 부녀회가 마을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좋아 보임</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p> <p>- '부녀회'는 노인들을 돌보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소통하는 새터말'은 마을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 각자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일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자들은 아니었음</p>
<p>✓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p> <p>- 통장을 통해서 사업을 알게 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p>	<p>▶ 의견수립부터 추진되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여성주민은 말하나, 정책결정회의에는 해당 여성주민만 참여하고 있었음</p>
<p>✓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p>-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p>	<p>▶ 의견을 내는 90% 이상이 여성이고, 그 모아진 의견의 90% 정도가 반영된다고 하니 매우 높은 비율로 보이나, 사업의 어떤 부분에서 그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함</p>
<p>✓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p> <p>-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힘든 것 같다.</p>	<p>▶ 토지 보상 등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p>
<p>✓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충분한 설명 후 완전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참여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분과 동행하여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다.</p>	<p>▶ 지역에서 만난 한 여성노인도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새로 조성될 커뮤니티 센터에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어린이 실내놀이터)이나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학생들의 바리스타 체험, 두부 만들기 등)이 보강된다면 마을과 주변 지역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거 같음
 - ◆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공간(애견카페)이나 프로그램(펫 의상 만들기, 펫 미용, 펫 조련 등)을 마련하면 해당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아직 사업초기라서 현장을 둘러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볼 수는 없어서 아쉬웠음
 - ◆ 의견을 내는 분야에는 여성 참여율이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분야에는 대부분이 남성이어서 아직도 성 주류화가 실천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어 보였음
-

◇ 대상사업: 동구 가오동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명	‘가오 새터말 살리기’		
대상사업 지역	동구 가오동	모니터단 성명	최 명 주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1(목) 13:30~16: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동구 대전로 470번길 32) 및 가오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19(금) 15:00~17:00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p> <p>- 노인회, 부녀회, 문화봉사단(안전, 집수리), 소통하는 새터말(주민회의) 등 주민공동체는 5개 정도 있다.</p> <p>- 참여도는 좋은 편이며, 주민역량강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p>	<p>▶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 당시 들어갔던 마을발전위원회 회장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았음. 이에 여쭙보니 원해서 회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말았다고 하셨음. 참여도가 좋다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의 활성화인지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p>
<p>✓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p> <p>- 기대가 높은 것 같으나 사업자체가 빠른 피드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지친 것 같다.</p>	<p>▶ 행정에서의 불필요한 참견과 제약 때문에 주민들의 심력 소모가 심해보였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쌓여있는 것 같았음</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개인이 참여하는 회의가 아닌 회장단 회의를 진행하여 회장단이 회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유한다. 월 2회하고 있으나 모든 분들이 두 번 참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1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교육진행으로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날 예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을 만나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여성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수렴하는지 코디네이터 인터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음. 당일의 회의에는 7명의 참여자 중 여성 참여자가 1명밖에 없었다고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주민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연령대는 40~70대이고 특히, 50대가 적극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이 대부분임에도 회의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남성이었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여성들의 참여도와와는 무관하게 실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주도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히 적극적이시다. 이곳에 사는 실 주민이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고, 수렴율은 대략 7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렴도가 높은 것은 좋지만 사업의 각 항목들에 대한 수렴도를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지를 부리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를 이야기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지를 부리는 지점이라는 말이 너무 중의적임. 인터뷰 도중 축제를 맡고 있는 여성 분과장이 이젤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필요 없는 지출이라며 의견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이 보였음.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계가 복잡해 사업이 늘어난다는 듯한 감이 있다. 빠른 행정체계가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주민들에게 회생만을 강요하는 면과 관의 지나친 제약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체계가 복잡해지는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더불어 마을주민을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 주민 간의 갈등이 어렵다. 예를 들면 A와 B가 사이가 안 좋는데 마을 회의에 A가 나오면 B와 그 친한 사람들이 우르르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제3자가 끼어들기 힘든 부분이라 어렵다.</p>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시설 활용으로 주민 간 소통 도모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재생(주거환경 개선)으로 노후 된 지역이 아닌 도심 속의 전원 공간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새로운 비전 제시 <p>□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가오동 현장지원 센터 -사진 설명 : 주민과 소통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것을 논의하고 계획했던 상황.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며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생방안을 도출함</p> </div>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신기 경로당 -사진 설명 :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의 주방 및 화장실을 정비할 예정임</p> </div>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커뮤니티 센터 예정지 -사진 설명 : 커뮤니티 센터 운영으로 주민 간 결집력 강화와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저장할 공간으로 마을기업 운영실, 현장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임</p> </div> </div>
<p>모니터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주민이 제시한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 주민의견을 수용하려는 모습이 보였음 ▶ 그러나 참여한 주민의 성격이 동원형인지 주체적 참여형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많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는데, 이에 대한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실효성과 주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과 방법이 필요한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음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p> <p>- 오머가며 만나는 주민들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재중 택배를 찾아가려고 슈퍼에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이런 거 한다고 참여해보라고 말씀하셨다.</p>	<p>▶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서로서로 아는 주민이 많은 것 같음.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통장역할을 하시며 센터 내 활동기도 겸직하고 있었음</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여성만 있는 공동체는 부녀회 밖에 없고 소통하는 새터말은 여성이 10명 중 7명 정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은 여성이다.</p>	<p>▶ 소통하는 새터말은 뉴딜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공동체인데, 마을복지와 마을사업을 위해 만들었다고 함. 여성비율이 높은 소통하는 새터말과 부녀회는 노인 돌봄과 마을 복지 등을 주로 맡고 있었음.</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p> <p>- 참여 주민 대다수가 여성이라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분과장도 전부 여성들이다.</p>	<p>▶ 분과장은 전부 여성이지만 결국 의사결정권자인 추진위원이나 사무국장은 남지였음. 참여자 대다수가 여성인데, 실질적 권력은 소수인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함</p>
<p>✓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p> <p>- 통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공청회를 가서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의견을 기초로 계획을 수립했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p>	<p>▶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가장 놀랐던 부분은 주민이 내놓은 사항이 전부 동구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었는데, 주민참여라는 의미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것인지 구색 갖추기 식으로 동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음.</p>
<p>✓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p> <p>- 돈과 관련된 문제가 어렵다. 다들 나라에서 돈을 130억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끼리 그 돈 나누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참여가 큰 만큼 보상에 대한 욕심이 크신 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골목길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큰 도로가 누구네 집 앞을 지나가느냐'로도 의견이 분분하다.</p>	<p>▶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크다보니 주민이 동원됨에 따른 보상심리가 큰 것으로 보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 보임.</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여성노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부녀회나 소통하는 새터말에서 매번 챙기러 가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사실 다음 날 되면 잊으시고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노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 후 완전한 이해를 바라지 말고 계속해서 안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제 분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게 하고, 후에 성과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소통의 부재라기보다는 아직 마을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음. 추후 사업이 진행 된 후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함</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주로 육아에서 벗어난 5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함. 대부분의 주민 참여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결정권자는 남성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음. 마을주민끼리의 가벼운 이야기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대외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됨. 여성참여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히 높은 참여율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즉,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 ◆ 여성참여 활성화라는 의미는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으며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여성에게 분과장이라는 감투만 씌어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힘이 있는 자리를 줘야함. 쉽게 리더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에게 리더십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함
-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 참여층은 여성임. 도시 또는 마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고 생활하는 여성들이 주체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역할에만 동원된다면 사업 참여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 여성을 그저 소모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데 부녀회가 마을 축제에서 많은 역할이 육개장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음. 외부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집에서 하던 집안일의 연장선 같다면 참여자들은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며, 주민참여를 저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음. 모니터링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도 어려웠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음. 인터뷰를 하면서도 맞게 하는 것인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았음
- ◆ 그래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음
- ◆ 젠더 전문가와 함께 한 3차 워크숍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젠더 전문가 워크숍을 2차로 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워크숍을 3차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부록 2.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유성구)

◇ 대상사업: 유성구 어은동 '일벌 SHARE PLATFORM'

대상사업명	'일벌 SHARE PLATFORM'		
대상사업 지역	유성구 어은동	모니터단 성명	문 성 남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5: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95-1 2층)	
	2018. 10. 15(월) 14: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어은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헛갈립니다.</p> <p>-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 산하, 각 도시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다.</p>	<p>▶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 듭. 따라서 주민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인지조사'도 필요함.</p> <p>▶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직업, 연령, 지역, 지역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음</p> <p>▶ 어은동의 경우 여성성인이 많음.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주민에 비해 재생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음</p> <p>▶ 비상인 여성 및 다른 성격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인지도 조사 및 인식확산 전략이 필요해 보임</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혼자서(이곳에서) 유성구(전체)를 맡나요?</p> <p>- 각 도시재생지역이 구마다 1~2곳 밖에 없는 상황가운데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어은동을 맡고 있지만 유성구 담당이라 불린다.</p>	<p>▶ 현 지원센터의 특성상 청년 세대가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음.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이 필요함</p> <p>▶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서 참여하게 된 요인도 성별이 영향을 미쳤을지 고려해 볼 수 있음</p> <p>▶ 도시재생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p>
<p>✓ 뉴딜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는 어떻게 정부관계자와 풀어나가나요?</p> <p>-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은 타 부처 간의 연계를 권장한다.</p>	<p>▶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음.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와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함</p> <p>▶ 부서 내 사업추진자의 의지와 성인지 이해도에 따라 여성친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도시재생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듯함</p>
<p>✓ 도시재생의 거버넌스 파트너는 어떻게 되나요?</p> <p>- 사업의 주관은 구청이며, 시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된 업무는 구청에서 맡는다.</p>	<p>▶ 구청 내 도시재생 관련 부서 의지가 중요해 보임. 해당 구의 방향과 의지는 어떠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가 있을까?</p> <p>▶ 성평등, 젠더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구청장(기관장)의 관심과 의지도 중요해 보임</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하나요?</p> <p>- 주로 '도시과'와 함께 한다. 함께 하는 부서가 한 곳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여러 부서와 함께 하고 있다. 기획실, 일자리과, 공동체담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 공동체가 리드하기를 바라나 준비가 안 된 사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내 모든 부서 가운데 우선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도 점검이 필요함 ▶ '도시과' 내 실제 어떤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에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을까 싶음. 도시재생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음 ▶ 유성구청 전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필요함. 결국 구청 모든 부서에서 칸막이를 넘어 이번 뉴딜사업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을지가 관건임 ▶ 공무원 역량 교육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다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p>✓ 청년 위주 사업이 많아 보입니다.</p> <p>- 실제로는 전체 사업가운데 10%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세대에 따라 사업 비중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직업, 성별에 따른 사업 영향도 고려해 볼만함 ▶ 사업이 세대별로 고루 분배되어 있을지라도 사업에 대한 세대별 정보인지력이 다른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세대별 사업홍보, 참여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주민의 참여는 단기적 성과로 보일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보전달도 필요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도시재생사업의 신청지역, 선정절차가 복잡합니다.</p> <p>-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2017년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선정이후 타당성, 방향 평가 등을 공청회, 지방의회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1년 정도 소요되었다. 이것이 통과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전에 얼마나 다양한 주민과 의견 교류가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함. 상인 외 노인, 육아주민,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 교류도 있었는지 살펴야 함 ▶ 계획수립까지 다양한 세대, 여러 성격의 주민과 소통하지 못했다면 사업 중에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있어야 함 ▶ “전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뜻을 모아 시작한 주민이 얼마나 될까?”,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하며 따라가고,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함 ▶ 여성주민, 집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주부층이 사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책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주민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진단이 필요함
<p>✓ 주민(마을공동체)의 참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p> <p>- 주민참여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부터 지역기반의 공동체가 있었어야 함. 도시재생의 사전 지원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가 원활한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야 함 ▶ 어은동의 경우 청년이 공동체 조성에 나섰다. 이러한 주민참여 기반(공동체)은 주민참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에 기반이 됨 ▶ 단, 참여하는 공동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특정 공동체, 주민의 의견만 반영되어서는 안 됨 ▶ 다양한 주민 의견, 참여가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며 어려움이 없나요?</p> <p>-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돈을 받아와 '우리 동네 살리기'에 쓰고 있는 것인데 일부 주민들은 '끼리끼리' 진행한다고 오해한다. 지금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의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에도 나서고 있다. 여러 면에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부족함도 느낀다. 사업의 진행, 요구되는 속도가 빠르다</p>	<p>▶ 사업지역 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모임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 좋겠음</p> <p>▶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 모임을 열어 누구나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필요해 보임</p> <p>▶ 마을신문을 발행하면 좋을 것 같음. 각 가정에 주기적으로 신문물 발송하여 읽는 것은 선택이지만 모두가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p> <p>▶ 주민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참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함</p>
<p>✓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p> <p>- 수많은 (지원)사업 경험이 쌓여서 다양한 공동체 내에 지역의 문제정의를 해오고 연구해왔다. 청년으로서 2016년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의 공유마을활성화사업(공유친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다. 지역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찾아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다.</p> <p>- 청년창업, 국민디자인단 등의 사업을 어은동 기반으로 실행하면서 주민과 교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산을 받아와 축제를 시행하는 등을 통해 꾸준히 주민을 만나는 과정을 거쳐 왔다.</p>	<p>▶ 청년 공동체가 나서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끄는 과정이 있었음. 하지만 청년 공동체가 지속성을 갖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조건 없이 역할과 책임을 함부로 청년에게 부과할 수 없음</p> <p>▶ 또한 청년 뿐 아니라 다른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지원도 함께 있어야 함. 공공활동,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 주민의 시간과 노동력을 무임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됨</p> <p>▶ 어은동의 경우 오히려 청년이 주도하였을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대상이 나타날 수 있음. 도시재생 사각지대에 나타날 수 있는 주민을 살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별집이라는 청년공동체 말고도 어떤 공동체와 교류하였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이 상가가 많고 2, 3층에 주택인 지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생계를 잇는 상인들을 만나 진행하고 있다. 와해된 상인회도 다시 살아나고 현재 자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장지원센터에서 상인회 조직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 이슬람센터와 교류하여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년창업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별집에 새로 정착한 공동체, 건물주, 노인정 어른들을 만났다. 한빛아파트 주민들도 만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이 상인들이 재생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사업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질 수 없었던 다른 유형의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다루어야 함 ▶ 다양한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건드려 줄 수 있어야 함 ▶ 필요하다면 다양한 주민들이 관심사와 성격에 따라 모임 수 있는 자리와, 다른 성격의 주민들이 모두 모임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p>✓ 공청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다. 건물주 분들도 많이 왔다. 공청회에 오신 분들은 공동체 보다 네트워크 조직이 많았다. 현안에 관심이 있다라도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통장의 참여가 높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집단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이번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음 ▶ 장애인단체(모임), 육아부모모임, 청소년활동모임 등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면 좋겠음 ▶ 공통된 가치, 필요가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운동성을 키워주는 역량강화가 필요) ▶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이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가 필요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 지역 내 건물 공실이 있나요?</p> <p>- 마을에 공실이 있다. 공실이 없더라도 사업이 망한다. 임대료를 높여 놓고 파는 사업자도 나타났다.</p>	<p>▶ 도시재생사업을 부동산 투기 기회로 여기는 사업자, 주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려되어야 함</p> <p>▶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도시재생 사업차원에서 이루어져 함</p> <p>▶ 도시재생 사업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p>
<p>✓ 통장님의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p> <p>- 대부분이 남성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하시는 분이 남성이 많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p>	<p>▶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주부가 통장을 주로 맡는 반면, 상권지역에서는 여성이 통장을 맡는다는 편견이 통용되지 않음</p> <p>▶ 오히려 지역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통장을 맡지 않는지 살펴야 함. 일반 주민, 육아주부에게도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함</p> <p>▶ 주민으로서의 활동에 상인이 아닌 일반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주부, 독거노인, 육이를 맡는 부모 등)</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도시재생에서 여성 참여도가 어떤 것 같나요?</p> <p>- 애초부터 성별 제한, 성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지역적 특색 자체가 여성 참여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에 정체성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참여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p>	<p>▶ 단순히 남성, 여성에 대한 참여를 살펴보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집단과 그렇지 못한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나아보임</p> <p>▶ 여성 안에서도 직업, 연령, 생애주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p> <p>▶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갖지 못했던 대상층에게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p> <p>▶ 사업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전달 및 설득이 이뤄져야 함</p>
<p>✓ '성'을 고려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p> <p>- 노인정 리모델링 시 남녀 공간 구분 때, 커뮤니티 센터 및 셰어하우스 사업에서 고려를 할 것 같다.</p>	<p>▶ '성 주류화 전략'이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에 대한 인식을 잡기가 쉽지 않음</p> <p>▶ 현장지원센터가 범인으로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게 할 때 성인지 교육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p> <p>▶ 기저귀 교환대, 휠체어 이동계단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배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도 필요해 보임</p> <p>▶ 치안을 위한 거리 밝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마을에 일자리가 생겨날 때, 그 일자리에 누가 돌아갈까요?</p> <p>- 경력단절여성은 한빛아파트에 많고 이 지역은 상인들이 대부분이며, 비울상 이미 많은 여성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다.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예비창업자들의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는 센터운영 자제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다. 3년 이후 사업종료 뒤에도 누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려한다.</p>	<p>▶ 사회에서 인식하는 여성상과 사업지역에서 인식하는 여성상이 다를 수 있음. 여성보다는 노인, 아이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주목 받을 조건이 많아 보임</p> <p>▶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라면 다문화, 외국인 가정의 전업가사종사자 및 장애를 가진 여성, 취업준비 주민 등이 될 수 있음</p> <p>▶ 육아, 돌봄으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때, 특수교육 및 발달장애 육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함.</p>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건설 외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거리 환경 개선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증설사업 등 <p>□ 사진</p>	 <p>-사진 장소 : 사업지역 내 건물 입구 -사진 설명 : 자연친화적으로 식물을 설치하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죽음</p>
 <p>-사진 장소 : 유성구청 인근 -사진 설명 : 도보가 없고 극심한 주차난이 나타남</p>	 <p>-사진 장소 : 현자원센터 입구 -사진 설명 : 임시 장소, 건축물 구조상 장애를 가진 주민이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p>
<p>모니터단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사업 지역 곳곳에서 발견됨 ▶ 일반 주택가에서 보행안전, 시설이용, 치안 등 요소 가운데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남 	

탐색 내용

□ 사업명

-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창업 역량 강화지원 사업 외

□ 사업목적

- 주민주도적 활동,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 사업내용

- 공동체 조직 및 연대, 활성화 지원

□ 사진



- 사진 장소 : 사업지역 내 가게 앞
- 사진 설명 : 상인회의 자발적인 도시재생 활동



- 사진 장소 : 사업지역 내 가게 앞
- 사진 설명 : 상인회의 자발적인 도시재생 활동



- 사진 장소 : 사업 지역 내 작은 도서관
- 사진 설명 :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파트너 확보 가능성이 있음

모니터단 의견

- ▶ 상인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조성 및 활동이 잘 나타남
- ▶ 네트워크 및 공동체, 역량주민 발굴을 통한 사업 참여의 가능성이 보임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p> <p>-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되어 돌아와 사업체도 운영해보았다. 지역 상권의 열악함(침체)을 느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려야 할지 모르다 마을활동 청년과의 교류로 힘을 얻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사업의 조건에 부합한 지역 환경이었음 ▶ 성장 또는 생활경험이 있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음(문제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새롭게 이주해오는 주민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 정서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단을 개발해야 함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30~40 곳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상인으로서 참여하는 여성주민이 많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성별 구분이 없는 공동체 가운데 여성의 참여가 높음 ▶ 여성으로만 구성된 공동체의 활동은 잘 보이지 않음 ▶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육아여성, 주부들의 모임 조성이 필요해 보임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p> <p>- 맛벌이 상인의 경우 남성이 사업장을 돌보는 동안 여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요식업 종사자, 사업주 가운데 여성이 많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참여하다보니 부부 상인이 역할을 나누어 일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운데 여성 참여도가 높음 ▶ 업종에 따른 성별 차이가 나타남. 이발소, 세탁소 외 다수 요식업 점포는 여성 사장이 많음 ▶ 상인 외 일반 주민의 참여 증감 추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p> <p>- 사업 계획의 경우 올해 상인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p>	<p>▶ 현장 코디네이터가 결정하여 일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을 만나며 의견을 들음</p> <p>▶ 상인회 월례회의 뿐 아니라 수시로 코디네이터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격이 없는 사이로 보임</p> <p>▶ 이러한 모습은 모든 주민보다 인터뷰 참여자의 적극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됨</p> <p>▶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나 다른 주민참여 조직의 모습이 안보임</p>
<p>✓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에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p>- 여성이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p>	<p>▶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또는 약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음</p> <p>▶ 다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여성)주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현재의 여건이 힘들어 보임</p> <p>▶ 사업 참여에 비주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접근법에 대한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p>
<p>✓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p> <p>- 예산 문제가 있다. 재화용품을 활용하여 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p>	<p>▶ 성별을 떠나 주민의 요구는 제한된 예산과 환경 안에서 전부 수용은 힘들어 보임</p> <p>▶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주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안내, 설명회 등을 열면 좋을 것 같음</p>
<p>✓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p> <p>- 생계를 유지하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간부족, 피로 등이 있다.</p> <p>- 취지는 좋은 데 주민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p>	<p>▶ 주민의 본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에 대한 균형이 필요함</p> <p>▶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모이고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요? - 전부터 상인 주민들끼리 심야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비공식적으로 있었고, 마을사업에 참여하며 기록물 집필과 함께 모이는 식사자리를 공식적으로 열어드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정되는 것만큼이나 지원 과정에도 의미가 있음. 활동가 역량을 갖춘 주민을 발굴 양성하고, 주민이 조직화 되고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 상인회 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주민간의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는 선행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여기서는 주민이 몸처서 주도한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구한다. (청년이 나서서 관공서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관공서에 문을 두드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을 가진 주민을 어떻게 발굴하고 양성, 성장지원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여성 주민도 얼마든지 사업 참여를 주도하는 여성이 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위한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상인들께서 믿고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이웃(가족)과 결속력이 생겼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주민,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이 나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정신을 어디서부터 끌어올 수 있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름. 그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확장해야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라도 공동체 활동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보다 상인이 더 많이 차지하는가요? - 상인이 대부분이며 상인 대부분이 가사도 함께 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여성의 참여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사업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센터와 일반 주민간의 관계 맺기가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지원해주는 공동체 사업은 참여하지 않는지요? - 주민활동은(사업기간 보다 수시로 유연성 있게 나타남) 공고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주민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건에 사업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홍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하다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을 양성할 필요도 있음(주민 역량강화 사업)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하나요?(남성 인터뷰) - 33곳 중에 30%정도만 따라온다. 상인회가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몇 개월 만에 많이 따라오고 있다.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갖고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이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삶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함 ▶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동체의 체질개선 및 역량강화 과정도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공동체가 뉴딜사업에 참여 하고 있나요?(남성 인터뷰) - 노인회, 주민대표, 건물주, 청년대표가 함께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어머니모임 등 커뮤니티, 네트워킹이 참여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편부모 모임, 조손가정 모임, 장애아동 가정 모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도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따라오지 못하는 점포는 어떤가요? - 미장원, 이발소, 세탁소 등 뜻을 함께 할 뿐 적극적인 참여는 힘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종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민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 상인 주민의 보편적인 요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도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시설물 사업뿐 아니라 SNS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품을 활용했지만 다른 지역공동체와는 연계가 있었나요? - 만난 적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등 단위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과 주민간의 입소문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왕왕(벌집) 중심의 사업, 활동 주도 보다 유성구 마을넷과의 연대, 교류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변화하는 동네, 이후는 어떻게요? - 주민이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품을 활용했지만, 축제가 아니더라도 동네와 거리가 예뻐질 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주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됨. 여성 일자리, 청년일자리 증가를 장기적으로 기대함 ▶ 일자리 측면 뿐 아니라 주민 생활복지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에 와서 주민들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남성 인터뷰) - 이주 지역이라 이전부터 아는 분들도 있고, 전부터 봉사활동도 해오고 해서 주민과 양래가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해보는 것도 주민간의 교류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새롭게 이주민으로서 어은동에 정착하게 되는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를 추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 복지관이 없네요? - 동네가 작고 지을 곳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센터 공간 및 역할의 일부에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복지관을 세울 수 없다면 '마을 사회복지사'를 채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기존 복지관의 분관(지소), 이동 사무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30명씩 만나면 어디서 만나나요? - 돌아가면서 가게에서 만남다. ✓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나요? - 지붕과 데크(테이블)를 2016년 마을사업으로 설치하여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먹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다. 차곡차곡 쌓여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공동체 외 주민간의 교류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음. ▶ 상인이 아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함 ▶ 다세대 주택 2, 3층에 머무는 주민들을 교류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사, 모임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과 저녁에 시간대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 낮과 밤이 많이 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 아닌 방문객도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듯함 ▶ 교통지원, 환경미화 등에 주민참여 활동이 확대되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사업으로 생겨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나요? - 주민간의 신뢰가 도전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씩 실행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역량강화, 정보제공, 사업영역 확대, 활동대가 제공 등) ▶ 주민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단 모집 등의 참여방법을 확대하길 권함(참여경험 제공)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활동가로서)순수한 동기로 참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나요?</p> <p>- 많다.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 대가를 바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당장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해본다.</p>	<p>▶ 공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함(활동비, 일자리 등)</p> <p>▶ 현재 어은동에서는 대가로서 마일화폐를 고려하고 있음.</p> <p>▶ 마을 내 도시재생 분야 창업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함</p>
<p>✓ 일을 그만두고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p> <p>- 포기했다. 뭐라 하더라도 해보기로 작정했다.</p>	<p>▶ 주부의 사회참여, 사회기여 활동에 대해 회의적 또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짐</p> <p>▶ 활동가 주민에 대한 존중해주고 격려하며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함</p>
<p>✓ 이웃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p> <p>- 갈등과 이해관계를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성장해갔다.</p>	<p>▶ 기존에 공동체를 이룬 주민 안에서 뿐 아니라 일단 주민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p> <p>▶ 특정이 아닌 보편적인 교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인정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공동체 조성에 성과를 측정하는데 관대한 기준을 두어야 함)</p>
<p>✓ 자동차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p> <p>- 사람들이 다닌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다. 오히려 사람만 많이 모이게 된다면 좋다. 그래서 사람이 더 많아지면 해결 될 문제다.</p>	<p>▶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함</p> <p>▶ 현장지원센터 측에서도 일정 구간의 '차량 없는 거리' 조성을 고려하고 있음</p>
<p>✓ (1층에 상인들이 영업을 하시면) 2, 3층에는 보통 누가 사나요?</p> <p>- 외국인 부부, 학생이 많이 산다.</p> <p>✓ 그렇다면 외국인과도 잘 어울려야 하지 않을까요?</p> <p>- 우선 내국인 주민과의 알아가야 할 것 같다. 인사는 나누는 사이고 외국인끼리는 잘 어울리고 있다. 주민과는 아직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에게는 외국인이 낯설고 이해관계 차이도 있다. (중국인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외국인 커뮤니티도 주민들에게 다가서지 않는다.</p>	<p>▶ 센터 측면에서는 현재는 당장 외국인 거주민과 교류할 여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p> <p>▶ 초반부터 거주민과 거주 외국인인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임</p> <p>▶ 외국인 주민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뉴딜사업으로) 임대료 인상의 영향은 없나요?</p> <p>- 몇 곳이 있다. 건물주, 세입자 각자의 영향이 있다. 건물에 카페가 들어오려는 영향도 보인다. 조그마한 동네에 커피숍만 들어서면 문제다.</p>	<p>▶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임대료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p> <p>▶ 주민간의 임대료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임, 캠페인을 권함</p>
<p>✓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나요?</p> <p>- 문체적 요소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려한다. 주민이 서로 모이려고 한다.</p>	<p>▶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주민이라 부르는 대상이 '상인'이 아닌 '모든 거주민'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해 보임</p>
<p>✓ 새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나요?</p> <p>- 자연스럽게 참여하기도 하고, 제안하여 참여하도록 한다.</p>	<p>▶ 새로 입주하는 상인 뿐 아니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와의 협조가 필요해 보임</p> <p>▶ 온천2동은 인구대비 행정관리 면적이 넓음. 온천2동에 속한 어은동은 특이나 주민센터와 거리가 멀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동 단위 행정지원과 협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p> <p>▶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센터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됨 (주민센터 분소, 이동사무소 활동 등)</p>
<p>✓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p>- 이미 여성의 참여도가 높다. 대부분이 여성이다. 남성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대가 잘 맞지 않다. 주간 시간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한다.</p>	<p>▶ 광범위한 여성의 참여보다는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못한 여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p> <p>▶ 다양한 성격의 주민이 소수라도 모일 수 있는 모임에 담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음(대민 전담 코디네이터 확보와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2, 3층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의 경제수준은 어떤가요?</p> <p>- 내국인은 취약계층일 수 있고, 외국인은 유학생이기 때문에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다.</p> <p>✓ 앞으로의 외국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될까요?</p> <p>- 차츰 차츰 많아질 것으로 믿는다.</p>	<p>▶ 어은동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거주 외국인’이 주요 참여대상에 들어갈 것임. 따라서 참여대상으로서 꾸준히 관계를 가져야 함</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상인회(상인 조직)에 참여하는 주민 외 일반 (여성)주민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자리 마련
- ◆ 기존에 활동하는 외국인 네트워크와 내국인 주민간의 교류 장 확대
- ◆ 공동육아 인프라 조성을 통한 육아 여성에게 유효한 활동시간 확보(다문화, 장애아동 육아도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 시간이 마련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마을 사회복지사 활동)
- ◆ 집집마다 지역사회,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식지 제작 및 배포 (마을 신문, 주민기자단 활동)
- ◆ 활체어이용 장애주민의 보편적 이동, 이용편의 제공(신체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활동도 고려, 배려 되어야 함.)
- ◆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큰 글씨 간판 및 메뉴 등 홍보 강화
- ◆ (여성)주민활동 참여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시/상시 개설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도시재생사업에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 상인의 참여가 도시재생에 얼마나 높은지 이해할 수 있었음(일반 주민의 참여는 여전히 미약했음)
- ◆ 도시재생사업이 이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의 기회와 그렇지 못 할 경우의 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음
- ◆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청년, 여성, 노약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
- ◆ 도시재생사업은 귀한 세금이 들어갈 뿐 아니라 주민의 생계와도 연관된 만큼 성공여부가 중요함
- ◆ 다양한 성격의 주민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을 느낌

◇ 대상사업: 유성구 어은동 ‘일별 SHARE PLATFORM’

대상사업명	‘일별 SHARE PLATFORM’		
대상사업 지역	유성구 어은동	모니터단 성명	윤 영 숙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5: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95-1 2층)	
	2018. 10. 15(월) 14: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어은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p> <p>- 노인회. 상가 번영회. 건물주. 청년회. 아파트 부녀회 등이 있다.</p>		<p>▶ 현재는 상가 번영회와 청년회 등이 가장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주변의 한빛아파트 부녀회 여성들과도 자주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상가가 활기를 찾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함</p>
<p>✓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p> <p>-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적극적이고 협조적인데 일반 주민들은 오해를 하시기도 한다.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면 고맙다고 하신다.</p>		<p>▶ 도시재생사업이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상인들이나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는 당연함. 하지만 현재 관심이 없는 다른 계층의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야 할 듯함.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p>
<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일반주민, 건물주,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만난다. 집에 있는 외국인이거나 학생들은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p>		<p>▶ 도시재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인회나 건물주만의 의견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이 이어져야 하고, 두 건물이 구성되기 전에 반드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나중에 불만이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p> <p>-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라서 여성들이 많은 편이다.</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p> <p>- 대부분 협조적이며 그중 상가번영회 회원이 아니지만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도하는 여성 마을활동가가 있어서 내년에는 함께 일을 해 나갈 예정이다.</p>	<p>▶ 현재는 상인들 위주로 관심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관심을 끝만한 내용을 넣은 사업 홍보지 등을 제작해 재생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함</p> <p>▶ 무보수로 봉사하던 여성 활동가가 내년에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니 다행임. 상가 번영회 이외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참여를 고려하면 마을 사업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듯함</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p> <p>-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 중 여성이 많다보니 여성의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된다.</p>	<p>▶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참여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봄. 여성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동반하기 때문임</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주민들에게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직접 건드려주어야 한다고 본다.</p>	<p>▶ 구화 축제나 안녕축제 등 마을행사가 있을 시에는 홍보 전단지를 직접 집마다 방문에 돌리는 것도 더 많은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일 듯함.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주는 것도 좋을 듯함</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 상인들이나 건물주는 적극적이지만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오해를 하지만 과정보정명을 들으면 이해를 한다. 학생, 외국인들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p>	<p>▶ 현재 마을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그들의 필요(외국인: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요리 등)를 찾아 보완해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마중물 같은 선행이 필요해 보임</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현재 코디네이터님이 속해있는 별집 왕영 그룹이 어은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 수와 여성의 창업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p> <p>- 저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성별을 구분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어은동에 있는 사업체수는 7개이고 여성이 주도하는 사업은 3개이다.</p>	<p>▶ 마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이 먼저라고 봄. 그 과정에서 지역 인적자원이 발굴되고 적당한 마을 사업이 태동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생각됨</p>
<p>✓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 학생, 외국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p> <p>- 마을에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우리 마을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p>	<p>▶ 마을 상호간판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등의 외국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좋음. 양방향 디스플레이에 영어가 포함되어, 그들도 주민이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람. 주부들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p>
<p>✓ 건물을 사면 뒀 층은 셰어하우스를 할 텐데 건물 구조상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중이신지요?</p> <p>-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셰어하우스도 그렇고 노인정도 그렇고 성비를 유념해서 건물 리모델링할 때 참고해야겠지요.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p>	<p>▶ 여성이 거주할 셰어하우스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화장실 건물의 입구 등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난간이나 바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함 필요</p>
<p>✓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3년 뒤에는 없어질 텐데요. 자생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면 인적 자원을 찾아 교육 등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p> <p>-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시작한 단계이며, 마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주민들의 자생적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p>	<p>▶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필요함. 마을공동체사업이 3년 후에도 주민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주민들의 주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고 사회경제조직이 클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함</p>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 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다문화 외국인+한국인 공유사업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개선, 안전한 생활권 확보, 다국적 공유커뮤니티를 위한 인터내셔널 존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건설, 골목길 보행환경정비사업, 옥외광고물정비, 안내판(영문병기)설치 	
<p>□ 사진</p> 	<p>-사진 장소 : 보행환경정비사업 대상 골목길</p> <p>-사진 설명 : 차사이로 보행하는 위험한 주민</p>
	<p>-사진 장소 : 이슬라믹센터</p> <p>-사진 설명 :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p>
	<p>-사진 장소 : 외국인 음식재료 상가</p> <p>-사진 설명 :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표기 간판</p>

모니터단 의견

- ▶ 주차된 차와 주행하는 차 사이로 유모차를 끌며 보행하는 사람이 위험한 골목. 보행하는 사람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함
- ▶ 대전에 유일한 이슬라믹센터와 연계해 이슬람 문화체험을 마을축제에 접목하고, 다양한 다문화 체험의 장으로 확산 고려해야 함
- ▶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영문간판이 보기에 좋았음. 이런 함께하는 마음이 마을을 더 행복하게 키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탐색 내용

□ 사업명

- 노인, 어린이, 여성, 사회적 약자 공유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 사업목적

- 삶의 질 개선, 조화의 거버넌스, 공동체 활성화

□ 사업내용

-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 노인정 리모델링 사업

□ 사진



- 사진 장소 : 어린이 공원 옆에 있는 노인정
- 사진 설명 : 소규모의 노인정은 노후건물



- 사진 장소 : 유성구 현장지원센터 회의실
- 사진 설명 : 별집 공동체 안에 있는 회의실



- 사진 장소 : 사업대상 끝목의 상가
- 사진 설명 : 상인들의 자발적인 활동모습

모니터단 의견

- ▶ 노후된 어린이 공원 정비는 육아맘의 의견을, 화장실과 노인정의 리모델링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했으면 함
- ▶ 현장지원센터의 위치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구청 안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됨
- ▶ 현장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상인공동체 회원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인 듯함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은동이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업도 했었지만 힘들었다. 코디네이터가 마을을 위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력을 되찾고 기뻐하는 상권을 살리면, 나도 잘 살고 후대인 내 자식도 잘 살 수 있을 거 같아 열심히 하고 있다. 	<p>▶ 여성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출신수범해서 활동함. 현장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와 상가 번영회 주민들의 신뢰감이 형성되어있어서 서로 소통하며 돕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음. 청년사업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함께 해 오는 과정에서 생긴 신뢰감인 듯함</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상가를 운영하는 여성 상인들로 현재는 상가번영회 정도이다.(상가번영회는 순수 여성공동체는 아님) 	<p>▶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나서지 않는 듯함. 사업홍보 인쇄물을 만들어 직접 전단을 돌리는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해보아야 할 듯함</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각자 가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 폐품으로 마을의 상징인 물고기를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빈 상가 앞에 대형 곰돌이 품에 껴장식해 멋진 포토 존을 만들기도 한다. - 때때로 마을 사람들과 공유 테이블에 모여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보낸다. 유대감을 갖기 위해 SNS에도 올리고 기록도 한다. 	<p>▶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대여섯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마을을 꾸미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음. 그러나 학생들이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 우리 마을 살리기 사업이 홍보가 덜 된 듯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지만, 그때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을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니까 조금씩 협조적이다. 	<p>▶ 여성이 주도하는 주민협의체(육아맘, 워킹맘, 주부, 노인)를 계층별로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면 더 좋은 공동체사업 참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육아맘들은 아이를 데리고 많이 찾는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모임을 시작하면 좋을 듯함</p>
<p>✓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반영 되리라 본다. 	<p>▶ 여성들도 열정만 있으면, 현장지원센터와 관련 주무부처의 도움을 받아 마을활동가나 공동체사업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마을전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면 힘들겠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음. 서로 배려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주민 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인식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여자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여자로서 힘들지는 않았지만 상인회 회원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 없어서 힘들었다. 또 돈이 없어서 몸으로 직접 뛰려니 육체가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진다면 생각하면 힘이 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성 활동가는 마을을 위해 직업도 없이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도 잘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힘들다는 생각이 듦. 마을활동가에 대한 활동지원이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우리가 스스로 마을을 위해 나서서 일하면 마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어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여성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참여가 힘든 이유를 찾아 지원해주고, 필요를 건드려 준다면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일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에 가입된 상가의 입주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현재 카페(7개)만 너무 많아서 식당이 더 들어와 주면 더 활기찬 동네가 될 것 같다. 안녕가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워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싶은 동네가 될 듯함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어은동은 '물고기가 숨어있던 동네'라는 뜻을 살려 상가마다 물고기 상징물을 꾸미는 상인들의 노력이 돋보임. 축제를 활용한 다양한 노력들이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 듯함. 현재 상인들은 주차는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예쁘게 단장한 가게가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의 보행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가는 너무 위험함.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차장도 조성 예정이니 점차 좁은 골목도로에 차량 주차는 금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음. 조금 곁에서 이동하더라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함.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임
- ◆ 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성인지적 관점 반영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해야 함. 여성 주차장에는 임신부나 유모차가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 ◆ 늦은 밤 골목길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심 벨 설치와 태양광전지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를 해서 밝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야 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면 2~3년 거주하러 온 외국인이나 유학생들도 떠나지 않고 정주하여 머물러 살 확률이 올라감. 안전을 위해서 공적자금지원이나 상인회 등을 통한 민간자금을 동원한 민간경비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지역주민을 민간경비요원으로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으니 마을 안전 좋아지고 일자리 늘어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됨. 주민을 중심으로 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
- ◆ 대전에서 20대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온천2동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방 유학생들이 거쳐 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끌어들이어서 그들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장을 열어주면 좋을 듯함. 이들도 현재 어은동 생활권에 속해 있으니 카이스트와 충남대 학생회에 마을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권한다면, 자신이 사는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어은동 마을을 살리는 반짝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함
- ◆ 어린이 놀이터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아이를 둔 엄마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더 좋을 듯함. 노인정은 너무 작아서 리모델링할 때에 실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구조를 덧대는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임. 어르신과 아이들이 가까운 공간에 있으니 둘을 연계해서 '이야기 할머니'나 '안전지킴이', '지하주차장 관리' 같은 노인 일자리로 이어지면 더 좋을 듯함

- ◆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육아맘을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면, 육아맘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할 수 있을 듯함
- ◆ 유성구 외국인의 72%가 어은동에 거주한다는 이점을 살려서 어은동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다양한 다문화 체험하는 곳으로 만들면 새로운 마을축제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듯함. 대전에 유일한 이슬라믹센터와 연계해 이슬람 문화(음식, 예술, 종교 등)체험의 장을 만들어 마을축제에 접목하고, 나아가 카이스트와 충남대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다문화 체험의 장으로 확산해 마을특화사업을 하면 어은동이 이태원 못지않은 국제 명소가 될 가능성도 커 보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그들과 공유하며 우리가 당신들의 안전이나 생활에도 관심이 있으니 함께 참여하여 원하는 바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그들도 목소리를 낼 것 같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 우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무료 한국어 교육, 요리교실 등)인지 파악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함
- ◆ 현재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마을활동가와 상인회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함. 그러나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을 막고,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불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현재 동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 마을공동체 교육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서 자주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좋을 듯함. 그동안 제도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육아맘, 워킹맘, 주부, 학생(초/중/고), 대학생, 외국인여성, 여성노인 등 각 계층으로 나누어 그들의 특성상 참여가 어려울 땐 지원(가령 워킹맘을 위해 교육시간을 퇴근이후로 잡고, 교육받는 동안 돌봄을 지원)을 통해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요즘 들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10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참고하면 좋을 듯함.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을사업의 홍보물을 돌리는 것도 필요함
- ◆ 공동체 사업이 3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마을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역량강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주체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적자원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마을공동체 사업이 풍성해지고, 나아가 사업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어은동의 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서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미 청년공동체가 마을과 연계해서 지역의 사람들과 유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로서도 큰 어려움은 없는 듯해서 다행임. 일부 상인들과 건물주들의 의견이 잘 수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임.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새로운 건물의 공간이 주어지고 그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 나아가 여성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면 좋겠음. 이번 활동을 하면서 모르고 있던 어은동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도시재생 교육도 받아서 좋았음. 여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음
 - ◆ 도시재생 뉴딜은 그동안 관주도의 행정에서 '주민참여'로 바뀌는 것이고, 행정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부터 실행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해서 주도해 나가야함.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생각이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음. 먼저 주민의 참여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육일 것임. 마을 주민이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다고 느꼈음.
-

◇ 대상사업: 유성구 어은동 '일별 SHARE PLATFORM'

대상사업명	'일별 SHARE PLATFORM'		
대상사업 지역	유성구 어은동	모니터단 성명	이 은 정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5: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95-1 2층)	
	2018. 10. 15(월) 14:30~17:00	유성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어은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p> <p>-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원룸 또는 투룸)으로 주민공동체 참여자의 대부분은 상인으로 구성되어있다.</p>	<p>▶ 마을 내 상가의 대부분은 그 마을의 주민으로 이루어져있음. 상인회의 참여도와 활동이 적극적임</p>
<p>✓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p> <p>-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해하였지만 마을의 변화를 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p>	<p>▶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마을살리기 활동을 해오셨음. 상인회분들의 참여가 적극적임</p>
<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상인들이라 마을 내에서 매일을 함께 생활하고 있다. 30여 개의 상가 중 10여 개가 상인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p>	<p>▶ 상가의 대부분은 식당, 카페숍 등으로 여성 사장님의 비율이 높음. 마을 안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상인회 대표님과 인터뷰가 있는 날에도 마을 끝목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상인들이 모두 모여 나눠먹는 모습이었음</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p> <p>- 식당, 카페업이 대부분이라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높고, 마을 내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마을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주민이 먼저 마을살리기 운동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p>	<p>▶ 마을살리기 사업이 자영업(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음. 몇몇 분들의 시작으로 지금은 마을 내 상가 대부분이 마을화페 '꿀'의 사용, '안녕가게' '비스토어' 등에 동참하심</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p> <p>- 상인회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고,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 것 같다.</p>	<p>▶ 카페를 운영했던 '마을일인'으로 통하는 여성이 있고, 상가 주인의 대부분도 여성임. 하지만 여성 상인이 마을 여성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에 일반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함</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p> <p>- 그림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청년 등 성별과 세대별로 마을에 요구하는 게 다르기에 각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조직하고 공통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p>	<p>▶ 각자의 목소릴 다 듣고 의견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소단위의 공동체를 만들어(육아맘, 워킹맘, 자녀양육에서 벗어난 50대 주부 등)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수렴하는 것이 좋을 듯함</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부분을 건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의견을 모으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부터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p>	<p>▶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모르거나, 필요성에 민감하지 않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자녀양육에서 벗어난 주부, 마을에서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 각자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좋은 마을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대표자 몇 분이 아닌 전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다.</p>	<p>▶ 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여 아직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함</p> <p>▶ 오랜 시간 마을 내 거주하지만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시는 주민들의 이끌어내는 것이 힘들어 보임</p>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특성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어린이공원 지하)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가로, 활성화 된 가로 조성 - 어은동 축제,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요 대응형 주차장 건설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건설, 보행자 가로 조성 <p>□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유성구청 두편 -사진 설명 : 식당에도 따로 주차장이 없이 마을전체에 주차난이 심각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어린이공원 앞 -사진 설명 :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양옆으로 주차되어 보행에 위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식당 입구 골목 -사진 설명 : 홍보 현수막이 있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잘 보이지 않음</p> </div> </div>

모니터단 의견

- ▶ 어린이공원 앞 도로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에 어려움이 큼
- ▶ 양옆으로 주차되어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함.
- ▶ 지역 상인들이 마을꾸미기의 일환으로 국화축제에 앞서 국화를 공동으로 구매, 가게 앞에 전시하였고, 어은동(물고기가 숨은 곳)의 뜻을 살려 폐품을 활용하여 가게들이 함께 물고기를 꾸며놓는 등 이런 활동이 마을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 마을축제를 기획,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은 부산에서 보냈고, 20대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어요. 3년 전까지 카페를 운영하다가 마을살리기를 위한 활동으로 바빠 현재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동네가 조금 더 예뻐지고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해 순수하게 마을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동네를 만들어주고 싶다. 	<p>▶ 마을 내 슈퍼사장님 양경모 선생님, 카페주인이었다가 지금은 '주민일인'으로 마을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장수경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였음</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곳 마을의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일룸, 투룸)으로 되어있다. 상가는 식당과 카페가 대부분이라 여자 사장님이 더 많아요. 호프집, 족발, 횡집 정도가 남자 사장님이다. 	<p>▶ 좁은 지역 내 커피숍만 7개임. 흐름을 타는 것 같음. 10년 전에는 이 골목에 바(Bar)가 10개도 넘었다고 함</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의 역할에 특별한 구분은 따로 없는 것 같다. 	<p>▶ '주민일인'으로 활동 중인 여성주민에 대해 구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처음이라고 함</p>
<p>✓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곳과 달리 주민이 먼저 주도했다. 폐품을 활용한 마을꾸미기도 실시했고, 9월 말에는 국화축제를 맞이하여 '국화 향기를 먼저 맡자'는 의미로 공동구매로 국화를 구매해 가게 앞에 준비해놓았다. 상가거리를 방문하시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했다. 	<p>▶ 상인회 회원들도 유치원 공작놀이 같지만 힘을 모아 마을을 꾸미니 재미있고 마을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서 부듯하다고 하셨습니다</p>
<p>✓ 공원 지회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지역 내 골목길에 보행자 통로가 따로 없어서 많이 불편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행자가 많아지면 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p>▶ 주차장의 건설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외국인 거주자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는데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p> <p>- 외국인들의 거주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보통 2~3년 정도 살다 가는 거 같다. 아직 무언가를 함께하기 위해 참여하는 비율은 낮지만, 인사는 하고 지낸다.</p>	<p>▶ 슈퍼마켓은 외국인들이 음식도 여러 번 맛보라고 가져다주었다고 함. 주민과 인사만 해도 마음이 배불러진다고 함. 상인회가 잘 되면 외국인과 어울리는 것은 그 다음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p>
<p>✓ 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p> <p>- 지금 유성구에서 국화축제가 진행 중인데, 축제 전부터 저희 상인들이 국화 화분을 공동구매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가게 앞에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회용 커피뚜껑, 음료수병 등을 활용해 물고기 모형을 만드는 등 가게 앞 꾸미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유치원 공작놀이 하는 거냐고 묻던 주민들도 지금은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장사하면서 같이 해야 하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긴 하다.</p>	<p>▶ 마을을 돌아보았을 때 일관성 있는 꾸밈이 가게를 장식하고 있으니 보기가 좋았고, '무엇일까?'하는 호기심이 생겼음.</p> <p>▶ 마을 외 사람들이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행사장이 마련되어 대전의 어은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p>
<p>✓ 이후 계획이 있나요?</p> <p>- 상가가 번영하려면 사람이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졌으니, 지역축제와 상관없이 거리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바꾸려는 직원들을 할 거다. 폐품을 이용해서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 활용도 계획 중이다.</p>	<p>▶ 일회기성이 아닌, 계절이나 축제 등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꾸며 상인과 손님 모두에게 즐거운 마을이 되었으면 함</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20대부터 60, 70대까지, 직장여성, 육아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 그리고 청년, 노년의 여성까지 매우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의 방향도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환경의 여성들의 참여로 그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여성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알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하고 시행할 때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어 종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각 공동체를 조직,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수렴, 마을재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유성구 어은동의 경우 단지 거주 외국인들의 비율이 높아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
- ◆ 공동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공동체의 유대감을 만들고, 오래 지속되도록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생산적인 것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의 경우, 공동육아로 육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부역 조성을 지원하는 것
 - 건축, 오리, 공예, 심리상담 등 전문성을 갖춘 여성들, 또는 전문직에 종사했으나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공동체 결집을 지원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게 하는 것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모니터링 시작하기 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공동체, 청년공동체, 청년공동체 등의 단어가 생소했음. 하지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코디네이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을을 살펴보고, 상인,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작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 ◆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이 없지만, 마을에 거주하고 그 마을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에게는 마을의 발전이 자신의 삶과 직결되기에 도시재생사업에 큰 기대를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 하지만 마을은 상인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않는 주민들이 대다수이기에 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양한 연령대와 환경,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마을재생사업을 찾아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부록 3.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대덕구)

◇ 대상사업: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율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명	'지역활성화의 새 여율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 지역	대덕구 신탄진동	모니터단 성명	김 경 선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6:00~18: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 및 신탄진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31(수) 16:00~17: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 - 대덕구 주민공동체, 자생단체가 20여개 있으며, 이외에 학습마을, 선진질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다.	▶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임 ▶ 주민자치위원회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
✓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침체 및 쇠퇴된 지역이 회복되며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주민협의회를 통해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회의한다.	▶ 37명의 주민이 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음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참여단체 중 여성의 비율은 30~40%이다. (마을학습동아리에 참여자 중에 젊은 여성 참여자는 현재는 6명이며 보통 50~60대도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협의회 가입을 적극 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법 논의는 아직 부족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 - 참여하는 여성 비율을 보면, 50~60대 비교적 많은 것에 비해 20~40대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 참여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개진보다는 참여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주민의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로 보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 여성, 남성을 따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주민공동체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섬세한 안목으로 사업을 살펴봐 주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은 세심한 부분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확대하기 이전에 홍보와 교육부터가 주민 맞춤형이 아닌 센터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필요한데 참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령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돌봄과 병행하기 어렵다 보니 참여부터 어려움이 많고, 학습 프로그램도 젊은 세대가 참여하기에는 매력적이지가 못하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참여 중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요? - 지역홍보를 위한 마을 축제, 프리마켓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에 관련한 의견들을 내주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활동을 보면 항상 고정된 관점에서의 노동참여를 보이고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유흥시설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원하나요? -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한 숙박 및 여가 시설을 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한 형태이고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였음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실제 건물이나 주택 소유자인 주민은 얼마나 되나요? - 주민들 중 주택이나 건물의 주민세대 비율은 높은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대 비율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나 지역발전 보다는 주민세대의 부의 정도가 상승됨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결정권이 얼마나 될까요? - 시작 단계인 사업이라 확실하지 않으나, 여성 부위원장(연령 60대)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 부위원장은 행사를 할 때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일은 가사노동이 장소만 변한 것 이라고 생각이 들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여성공동체 중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 주민자치협의회(각 통장님이 여성) 이외에 구체적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은 남자주민의 의견에 동의 정도로 보였음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점포 특화 교육 컨설팅,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점포 특화 컨설팅, 경영 서비스 디자인 개선행 교육운영, 20년 이상 된 노후점포 리모델링비 지원 <p>□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사진 설명 : 유흥가밀집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도보조차도 어려움</p> </div>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사진 설명 : 술집과 모텔길을 주민들은 지나다니기 어려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술집과 모텔숙박시설을 쳐다보기 불편함</p> </div> <div style="width: 30%;">  <p>-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사진 설명 : 술집으로 가기 위한 시작도로임. 아이들과 함께 이 길을 지나가고 싶지는 않음</p> </div> </div>
<p>모니터단 의견</p>	
<p>▶ 골목상권을 살리기라는 도시재생사업의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상권보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과 아이 외함께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염두에 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짐</p>	

탐색 내용

□ 사업명

-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목적

- 골목점포 특화 교육 건설팅,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

□ 사업내용

- 기존점포 특화 건설팅, 경영 서비스 디자인 개선타 맞춤형 교육운영, 20년 이상 된 노후점포 리모델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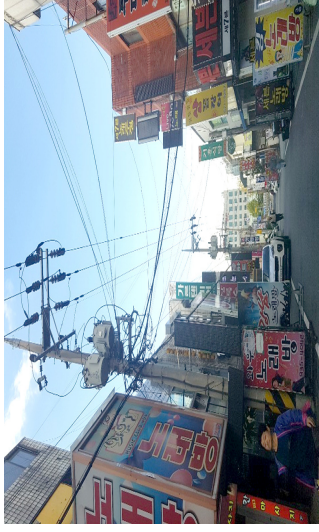
□ 사진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 사진 설명 : 술집이 너무 많아서 개수를 세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즐비해 있음.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 사진 설명 : 술집과 인접해 있는 성인용품점을 아이들과 함께 지나쳐 오기는 어려움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141-28번지일원
- 사진 설명 : 밤문화, 술문화를 즐기는 자들을 위한 유흥가 밀집지역에 주민은 지나다니기 어려움

모니터단 의견

- ▶ 골목상권이 개발되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유흥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음.
아이와 함께 유흥가를 끌고 이 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함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신탄진동 부녀회 회원이며 마을 일이라서 참여하게 됐다.	▶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이 강했으며, 남성리더의 보조역할에 만족해 보임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공동체로는 부녀회, 문고(도서관) 정도가 있으며, 참여하는 여성은 신탄진동과 이외 4개동의 주민협의회원 중 10명 정도가 있다.	▶ 여성주민의 참여를 적극 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보였음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아직까지는 사업의 시작단계로 뚜렷한 역할은 없으나, 주로 남성들이 회의 주도하고,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과 회의 안건을 지지하는 정도이다.	▶ 여성회장은 남성협의회장을 돕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꺼려함
✓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결정 과정은 아직 없으며, 회의만 참여 중이다.	▶ 의견을 내는 방법을 아는 것부터가 많이 필요해 보임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회의 참여자 30명 중에 여성주민은 10명 정도로 의견을 도출하는 것부터 어렵고 희박하다.	▶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의견 도출이 쉽지 않음
✓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성주민과의 회의에서 의견 내는 것부터가 어렵다.(속스러움)	▶ 여태껏 주민회의는 남성리더의 주장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에 습관화 되어있음
✓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다.	▶ 뭐라고 말하고 내세를 것이 없다고 함
✓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규모 홍보 원한다.	▶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심한 홍보 전략이 필요해 보임
✓ 여성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 아이와 손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조성이다.	▶ 안심하고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아이를 둔 여성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p> <p>- 돌봄 해결과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p>	<p>▶ 참여를 위해서는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p>
<p>✓ 주민공동체 네트워크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요?</p> <p>- 신탄진 4개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다.</p>	<p>▶ 동마다 주민공동체가 있다고는 하나 각 동별로 타동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음</p>
<p>✓ 주민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p> <p>- 지역공동체에 속하거나 주민협의회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주민협의회는 주민이라고 해도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p>	<p>▶ 신탄진동에 살지 않는 주민은 가입조차 가능하지 않다고 했고 공공함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함</p>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신탄진은 어느 한 동네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뉴딜사업임을 인지해야 함
- ◆ 상인중심의 뉴딜사업이 아닌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족하고 여성이 상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 사업의 시작단계인 지금 ‘여성 참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시급함
- ◆ 주민협의회에 활동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함
- ◆ 홍보 강화나 교육시간 조정 등 젊은 세대가 참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홍보를 위해 수혜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해 보임(다세대 홍보, 어린이집 홍보)
- ◆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고자 하는 방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함
- ◆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젠더, 성인지 관련 교육이 시급함
- ◆ 여성들에게 참여의 조건을 무로나 봉사료 강요하지 않아야함. 작은 보상으로 여성참여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함
- ◆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청장의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현장방문에 진입은 어렵지 않았으며 코디네이터와의 미팅 역시도 어렵지는 않았음
- ◆ 코디와외 인터뷰에서 계획단계라는 시점에서 뚜렷한 정보 교환이 부족했음
- ◆ 주민과의 인터뷰에서는 세대별 관심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사업이 더 진행된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함

◇ 대상사업: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명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 지역	대덕구 신탄진동	모니터단 성명	박 경 수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6:00~18: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 및 신탄진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31(수) 16:00~17: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 지역 내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선진질서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드림 등 자생단체 20개가 있다. - 희망드림은 여성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된 지 1년 정도 됐다. 다른 자생단체와 달리 젊은 층이 많다. 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뉴딜사업에서 주민협약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체에는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p>✓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지역이 침체되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것 기대하고 있다. 근처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약체에 3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은 13명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50~60대임 ▶ 협의체 자체의 여성 비율은 35%로 논의 및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율이 과반이 안 됨 ▶ 소규모 주민공동체 현황파악이 아쉬움 ▶ '주민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순 인구유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우려스러움 ▶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업을 상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p> <p>- 협의체하고 월 1회, 각 주민공동체와도 월 1회 만남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행사 때 참석하고 있다.</p>	<p>▶ 주민협의체가 월 1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주민협의체에 신탄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함</p> <p>▶ 도시재생사업 공간은 신탄진동이지만 신탄진은 3개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함</p>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p> <p>- 주민공동체의 30~40%는 여성이 참여한다.</p> <p>- 현재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5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자가 9명 중 50대 초반 여성분들이 8명이었다. 여성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높다.</p>	<p>▶ 20~40대 여성의 참여가 없어, 20~40대 연령대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p> <p>▶ 20~40대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참여 가능 시간을 파악하고, 대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구상하는 등 대상별 별도 모집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임</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p> <p>- 적극적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많으나 20~40대 참여가 저조하다. 주로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신다. 특히 프리마켓, 마을축제 진행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신다.</p>	<p>▶ 참여 연령대가 높아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지 못하고 있음</p> <p>▶ 사업초기 단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하거나 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p> <p>-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계획 수립 시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다.</p>	<p>▶ 어린이집 엄마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함</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 주민들 또는 여성들 간 연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p>	<p>▶ 한장지원센터 안에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게시해 둘 필요가 있음</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진입장벽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부족, 주인의식 부족 등 집단 소속감이 없을 수 있다. - 주민센터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참여율이 높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접근이 쉬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예를 들면, 각 아파트 게시판, 동네 알림 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것) ▶ 여성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 실제 건물이나 주택 소유자인 주민은 얼마나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세대가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 지역 특성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아 실제 상가와 주택의 대다수는 주인세대가 많으나, 비율로 계산해보지는 못했다고 함 ▶ 대덕구가 세입자들이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에 여성들은 결정구조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정을 할 만큼은 많이 참여하지 않지만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초기라서 결정을 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협의체 내 여성의 비율이 35%임을 볼 때,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공동체의 인지도 및 활성화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드림 순으로 보여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자생단체들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나, 신탄진 내 다른 여성공동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보파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과 인터뷰 시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대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대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먼저 파악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임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신탄진동 유흥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상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업소가 줄었으면 좋겠다. 여관도 정비가 돼서 호텔로 전환되고, 안전한 거리로 변화되길 바라고 있다. -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식사할 수 있는 거리이자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되고 실습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 상생협약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으며, 건물주와 세입자를 파악 중에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함 ▶ 뉴딜사업 진행에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히 보임 ▶ 유흥주점 업주들은 자체폐업이나 업소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담당 실무자는 업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하나 업주들의 자발적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불법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 경찰과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함
<p>✓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성과 도시재생이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코디네이터는 젠더 관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나, 현장지원센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음 ▶ 젠더 관점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됨 ▶ 별도의 교육 외에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교육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 사업명

-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노후된 점포를 개선하여 골목상권 살리기

□ 사업내용

- 골목점포 특화 교육, 건설팅
 - ① 기존점포 특화 건설팅
 - ② 경영, 서비스, 디자인 개선 맞춤형 교육 운영
-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
 - ① 20년 이상 된 노후점포 리모델링비 지원
 - ② 상생협약 체결 시 총 비용의 10% 지원 / 90%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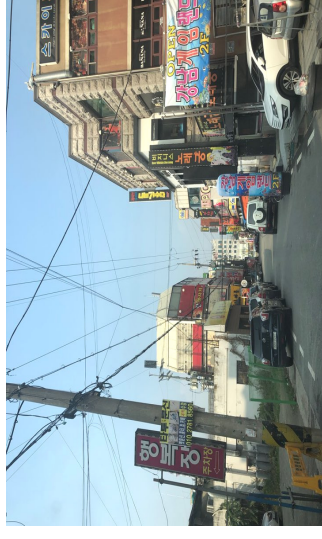
□ 사진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도시재생사업지역 지도
- 사진 설명 : 검은색 라인이 도시재생사업지역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골목상권 살리기 대상지역
- 사진 설명 : 사업지역 내 골목상권 진입로, 유흥업소가
초입부터 간편이 즐비함



- 사진 장소 : 신탄진동 골목상권 살리기 대상지역
- 사진 설명 : 사업지역 내 골목상권 중간지점으로
왼쪽은 모텔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유흥업소들이
있음

모니터단 의견

- ▶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컨설팅하거나 지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이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삶터, 일터, 놀이터로 재생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위의 첨부된 사진) 해당지역은 주로 유흥주점과 마사지샵 등 대전지역에서 손꼽는 유흥지역임. 주민들의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의 기획이 필요함
-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점포에 대해 컨설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에서 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 유흥지역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신탄진 전체 주민과의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 주민들 대상으로 유흥골목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모사업을 통해 받은 아이디어로 유흥상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 특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여성과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아트 플라마켓을 개최하는 등 여성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안에서 자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유흥업소들이 영업하는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문화공연, 밤마실 걷기, 푸드트럭 골목 등)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층, 여성,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유흥업소 업주들의 협조를 이끄는 것에만 집중하면 자칫 유흥업소의 리모델링이나 이들의 상권만 살려주는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모텔, 안마, 마사지샵 등은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행정적, 법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일이라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뉴딜사업하면 어려운 줄 알고 바쁘다고 하며 빠진다. 남성들이 많다. 여성 통장님들까지 해서 대략 10명 정도 된다. - 여성공동체는 각 지역 부녀회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부녀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에서 하는 것은 남성분들이 주로 한다. 자기 일도 포기하고 와야 하니까 참여가 어렵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회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 사업에 어떤 기대가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뉴딜사업 때문에 방을 빼라고 한다는 말도 있고, 그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병원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도 있다. ✓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어서 기회가 없었다.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가 없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여성도 별로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일에 대한 자발성이 높아 보였으며, 마을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해 오신 듯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여성주민들의 인식이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여성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함 ▶ 도시재생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문화 등)에 참여하는 대상은 여성이 많은 것에 비해 회의나 사업전체에 관여하는 여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며, 앞으로 여성들이 쉽게 사업 전반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재생을 재건축이나 개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개발적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사업초기 단계로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하는 과정이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주로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여성들의 참여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과정과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한 듯함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회가 없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 진행 초기 단계지만 진행 중인 세부사업이 있고, 이를 의결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우리 지역의 중앙 부분인 주점들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보임. 여성들이 유흥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집중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카페 같은 곳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편하게 와서 논의도 하고 일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회의를 개최하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나요? - 발표를 잘 안하려고 한다. 남성분들에게 주로 얘기하라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평소 앞에 나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견 개진에 소극적임. 여성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식적인 자리가 어렵고 주눅 들어 앞에 나가기 싫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공식회의 구조에서 발언의 경험이 적은 여성들이 발언을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와줄 수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민들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이런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 현재로서는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어렵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여성들이 주민으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상상하고,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쉬운 접근이 필요함. 특히, 신탄진 지역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함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여성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지원센터 실무자 및 활동기를 대상으로 젠더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 실무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성인지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 인식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야 함
- ◆ 현장센터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단순 실무만 담당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진행하는 것 필요함
- ◆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예를 들면, 주로 오후 시간대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데 20~40대 양육하는 여성들은 오후 시간대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가 박탈됨.
 - “오후에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성들이 시간이 안 맞는다.” 가 아닌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구조를 바꾸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 활동을 자원봉사 형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지역의 특성 상 주민협의체의 구성 연령이 높고, 대부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에 있어서는 남성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음
- ◆ 모니터링 사업 진행시 사전에 문서 작성 등 초반 교육과정에서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작성매뉴얼 등) 설명이 필요함

◇ 대상사업: 대덕구 신탄진동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명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대상사업 지역	대덕구 신탄진동	모니터단 성명	손 은 경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10. 10(수) 16:00~18: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 및 신탄진동 일대 대상사업 공간·지역	
	2018. 10. 31(수) 16:00~17:00	대덕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 학습마을 추진위원회, 선진질서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드림(여성)등 자조모임 20여 개가 있다. - 주민공동체의 회원 중 여성 비율은 30~40%이며, 희망드림은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 현황 파악을 대략적으로 전달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p>	
<p>✓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지역, 노후 지역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p>▶ 아직까지 정확한 자조모임의 현황 파악이 안되어 적극적인 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p> <p>▶ 여성참여에 대한 비율이 증대되도록 다양한 시간과 사업으로 여성참여가 증진되었으면 함</p>	
<p>✓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화로 월 1회 회의를 하며, 수시로 필요에 의해 미팅하고 있다. 	<p>▶ 자조모임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요구됨</p>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 - 20~40대까지의 여성인원을 기대하고자 하나 회원들은 참여 평균 연령대는 50~60대와 그 이상인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60대의 참여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젊은 층의 의도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법 모색이 절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 - 생각에는 젠더의 구분 없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의 구분이 없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50~60대의 참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도 있으며, 그중 남성의 주도권이 더 높은 것 같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섬세함과 체계적인 성향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교육이나 센터에서 지원하는 활동들의 참여도가 낮아 폐강되거나 아예 기획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시간대에 의견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주민, 특히 자녀양육과 일하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건물 및 자가 소유자인 주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지요? - 실제 주민들이 외부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실 소유주가 거주하는 것보다는 세입자가 많은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실소유주 조사결과가 필요함 ▶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의 인지도 및 활성화 정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드림(여성), 학삼마을추진위원회 순이 아닐까 생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낮아 30~40대의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30~40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SNS나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가 필요함

질문&답변	모니터링 의견
<p>✓ 사업 참여에 여성회원들의 의견권이 있나요?</p> <p>- 50~60대 여성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p>	<p>▶ 가입자체도 중요하겠지만 50~60대 여성들의 젠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어 여전히 의견권에 있어 소극적이라 판단됨 결과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교육 등을 제안함</p>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p>□ 사업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참여형 새마을 거리 가꾸기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 역 맞은편 주변의 모텔과 불법주차, 노후 점포, 유탄진역 정비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될 목적으로 지역대학에서 가로재생 실습을 통해 보다 쾌적한 거리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 연계형 가로재생 실습: 모텔 주차장 거리 개선 등 	
<p>□ 사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신탄진 중앙로 -사진 설명 : 노후 된 지하층의 노래방이 한 블록 안에 여러 개 존재함에 따라 주변 초·중·고 학교의 방과 후 귀가 시 청소년들에게 유탄진역에 유탄진역이 될 수 있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신탄진 중앙로 -사진 설명 : 모텔, 여관, 야간주점의 거리간판이 도로와 인접하게 나와 있기도 하며, 많은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민들의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운 환경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진 장소 : 신탄진 중앙로 -사진 설명 : 모텔, 안마소 등 모텔의 벽면의 홍보물이 매우 선정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며, 지역주민들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모텔주변의 쓰레기들이 지역주민에게 매우 불쾌감을 줌</p> </div> </div>

모니터단 의견

- ▶ 설명으로만 듣다가 직접 이동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을 때 주변의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어 개선 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 ▶ 낮에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었지만 지나다는 주민들은 업소와 관계없는 일반 주민들이었으며,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점에 개선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 무엇보다도 주변의 학교시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을의 이미지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었음. 적잖은 정부 투자가 신탄진 상권 활성화와 문화개선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도움이 되길 희망함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키우면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아졌고, 지역발전의 수혜자는 우리라는 생각에서 마을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을 위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함. 특히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수는 대표적으로 6~7개 정도지만 상당히 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화된 동아리와 비공식 동아리의 정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많은 의견을 내거나 하지 않지만, 지역의 여성 주민들이 참여해 제언하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없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 양육, 시간 등이 제한되는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해, 모임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이 공식적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하고 싶지만 가입 절차나 가입에 대한 홍보가 적은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필요로 함(브로셔, SNS, 홈페이지, 관련 관공서 홍보물 비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의 반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참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방법을 다양하게 받으면 좋을 듯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SNS, 오프라인 모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육아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제 육아를 하는 시기는 지나서 괜찮지만 아직 젊은 여성들은 양육과 시간에 쫓길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장소가 제공되거나, 근거리 이용가능 장소를 미리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서 모인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선택적 활동과, 시간, 장소, 돌봄 서비스가 지역에 잘 되어 있으면 보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대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돌봄의 장소를 확대하면 효과에 도움(맘카페, 지역 공동체 공간활용 등)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 여성참여를 위해 신탄진 지역에 동별 맘카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함
- ◆ 돌봄 서비스가 학교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면 여성참여가 더 증진되리라 확신함
- ◆ 적절한 참여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생각됨. 예를 들어 양육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일 경우 그 사업에 맞는 적절한 물질적 서비스(물티슈, 기저귀 제공 등)도 필요함
- ◆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하여 예비 사회복지사, 예비 보육교사, 예비 창업기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공동의 휴게실(회의실, 창업교실, 돌봄교실, 맘카페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특히 신탄진에는 필요함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 ◆ 현장 인터뷰는 한국문화에서 취조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음. 그 이유는 문화적(세대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임. 질문자가(모니터단) 부드럽게 질문을 하여도, 답변자(코디, 주민) 등은 발문과 문답에 문제가 될까 염려하는 기색을 볼 수 있었음
- ◆ 그 지역에 대해 모니터단이 충분한 정보와 사전 지식이 필요함을 느꼈음
- ◆ 자신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과제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것은 내가 살고 내가 누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나 자신이 되기에 흥미로운 과제 해결 과정이었음
- ◆ 운영진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구성해 주시길 바람

부록 4.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I. 모니터링을 위한 미리보기

1. ‘도시재생 뉴딜’ 무엇을, 어떻게?

▶ 도시의 성장과정을 통해 ‘도시재생’ 이해해 보기

① 198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②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신시가지로 이주를 하게 됨



③ 반면 구도시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쇠퇴하기 시작



④ 이런 구도시의 개선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었지만 사업 완료 후 상승한 주택값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문제 발생

이런 도시 성장 사업의 문제를 보완할 도시 성장 프로젝트 ‘도시재생’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

*출처: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ewdeal4you)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바로알기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쇠퇴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참여 미흡,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다는 한계에 봉착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 정비 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재활성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임

*출처: 김이탁(2018), ‘장소 만들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법을 모색하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뉴딜, <건축과 도시공간>, Vol.29, p6~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 주민과의 소통: 경제적 이익관계와 물리적 환경만을 중요시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과 협의 및 합의하는 것
-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 도시 문제를 주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 시설과 생활편의 시설 공급하는 것
- 기존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 기존 건축물 ‘철거→신축’이 아닌 기존 것을 보존하고, 교육·건강·범죄 등 사회적 측면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

*출처: 도시재생뉴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newdeal4you)

2. ‘성인지적 관점’이란 무엇일까?

- ▷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고 보고, 특정 관습이나 제도, 행위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

*출처: 주혜진(2008), 성인지 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 발전방향과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것은?

- 정책과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그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의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하고, 정책 사업의 결과도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 수혜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주혜진(2008), 성인지 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 발전방향과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3. ‘여성의 사회참여’가 중요한 이유, 짚어보기

- ▶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지역에서 보내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으며, 더구나 지역문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문제점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음
- ▶ 이러한 점은 여성의 다양한 생활 경험들이 사적인 경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이 처한 문제,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김지연(2003), 여성의 지역운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 민소영 외(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여성의 사회참여가 양성평등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역량 발휘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재평가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출처: 주혜진(2008), 성인지 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 발전방향과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어떤 방식으로 ‘여성참여’가 가능할까? - 정책추진의 여성참여 사례

▶ 여성친화도시⁶⁾ 서포터즈단

-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의 시각과 의견의 반영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지역사회 활동이 없던 여성의 경우, 시민참여단 조직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사업 추진 역량 증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사업 파트너로 역할을 부여함
-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모임, 동아리, 마을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확장 및 협업 확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사업 파트너로 역할을 부여함
- 주요활동
 - ① 현장 모니터링
 - ② 지역 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다양한 그룹 토론회 개최
 - ③ 시민회의(town meeting), 정책 및 간담회
 - ④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 사업

*출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2016), 2016년 기초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 II-유성구.

6)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 하는 지역

▷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참여 극대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예산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이러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함

*출처: 유홍성 외(2014),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인천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II. 현장 모니터링의 Point

1. 모니터링 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2. 모니터링 목적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주민 참여 현황 및 어려움, 욕구 등 파악
- ▷ 여성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안 모색

3. 모니터링 유의사항

- ▷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 및 모니터링의 목적 충분히 숙지하기
- ▷ 사전 연락을 통해 방문 및 인터뷰 일정 미리 조율하기
- ▷ 모니터링 지표 및 질문지 충실히 체크하기
-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의 내용 고민해보기
- ▷ 단순 문제(민원)제기 또는 지적이 아닌 연구를 위한 인터뷰임을 숙지하고 이를 방문 기관에 전달하기

4. 모니터링 진행 일정

구분	내용	시행일 및 예정일
모니터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방법 논의 및 교육 - 모니터링 취지 및 일정,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 - 센터관점으로 본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9월 3일
모니터단 1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안내 및 심화 교육 - 모니터링 진행 일정 및 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설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념, 4개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9월 21일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질문지 조별 보완 및 일정 조율 등 현장 모니터링 준비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여성참여 현황 및 욕구 파악’ 	9월 27일~10월 31일
모니터단 2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수정·보완 및 제안사항 도출 	10월 15일~31일 중 예정
모니터단 3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수정·보완 및 제안사항 도출 	11월 19일~23일 중 예정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된 최종 활동보고서 제출 	12월 3일~7일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내용 조별 발표 	12월 중순 예정

*모니터단은 예정되어 있는 모니터링 워크숍, 결과보고회에 필요 참석해야 해당 지급이 가능함

*수당은 워크숍과 결과보고회로 나눠서 지급 예정이며, 지급을 위해서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해당 지급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대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모니터링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총괄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

5. 현장 모니터링 단계별 실행 내용

단계	구분	내용	단계별 질문 및 포인트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방문 및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보고, 듣고, 물어보기 ① 코디네이터와 센터 방문 일정 정하기 ② 센터 공간 살펴보고, 사업 내용 설명 듣기 ③ 코디네이터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와 여성주민 사업 참여 현황,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
2단계	중점사업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사업 공간 또는 지역 심층 탐색 ① 코디네이터로부터 방문 가능한 공간 또는 지역 1~2곳 추천 받기 ② 코디네이터에게 사업 공간 또는 지역 설명 듣기 ③ 공간 또는 지역 방문해서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재생의 목적과 추진과정 이해하기 ▶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고민해보기
3단계	지역주민(여성)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심층 인터뷰 ① 센터 코디네이터를 통해 인터뷰 가능한 주민협의체 또는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여성 소개받기 ② 인터뷰 일시, 장소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내 장소 활용 가능한지 센터 문의 ③ 심층 인터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민 참여 실태와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4단계	활동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포함해서 총 2회 이상 모니터링 활동 실시

*1인 1보고서 제출 원칙

부록 5.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대상사업명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명 기입	
대상사업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구 및 동 기입	모니터단 성명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2018. 00. 00. 00:00~00:00	모니터링 장소 기입
	2018. 00. 00. 00:00~00:00	모니터링 장소 기입
	2018. 00. 00. 00:00~00:00	모니터링 장소 기입

■ 1단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묻기

예상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 지역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의 현황은 어떤가요? -	▲
✓ 주민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수, 규모, 만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

예상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p>✓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 여성들은 많이 오나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되나요?</p> <p>-</p>	<p>▲</p>
<p>✓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가요?</p> <p>-</p>	<p>▲</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의 참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p> <p>-</p>	<p>▲</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의 소통이나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p> <p>-</p>	<p>▲</p>
<p>✓ 주민공동체 또는 여성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조별 질문 수정·보완·추가

■ 2단계: 중점사업 탐색하기

탐색 내용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 장소 : -사진 설명 :	-사진 장소 : -사진 설명 :	-사진 장소 : -사진 설명 :

모니터링 의견
▲ ▲

■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에게 묻기

예상 질문&답변	모니터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주민, 여성공동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운영을 함께 있어 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 - 	▲

*조별 질문 수정·보완·추가

■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

< 종합의견 > 내가 제안한다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들과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느낀 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현장방문, 인터뷰, 문서작성, 교육과정 등 힘들었던 점, 부족했던 점, 좋았던 점, 운영진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 등 과정 중에 느낀 부분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